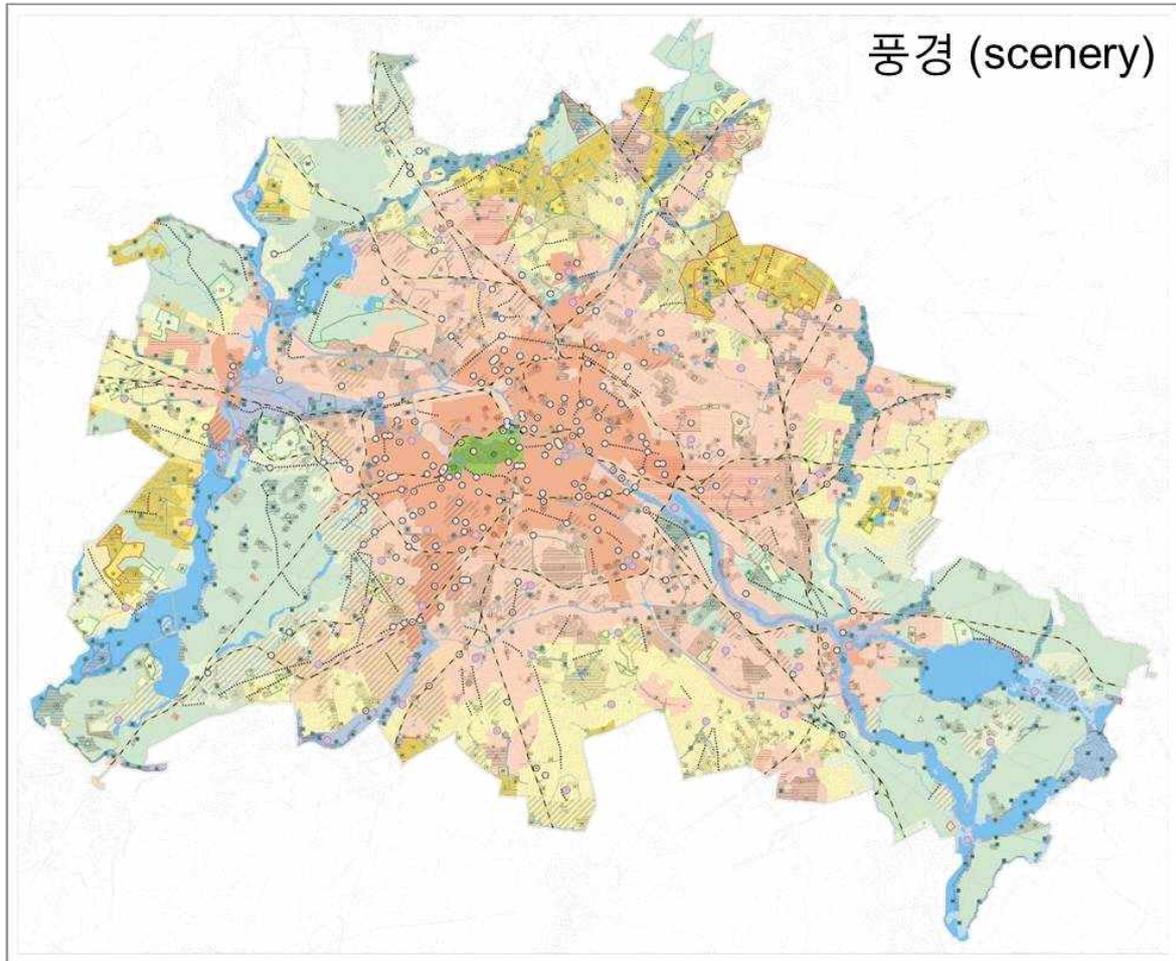


독일 환경생태프로그램 『풍경』 부문 Landschaftsbild · Scenery



2016년 9월

고정희

THIRDSPACE BERLIN
environment & landscape culture

1. 용어 · 개념

1.1. 용어 번역

독일환경생태계획은 네 개의 분야로 나뉘어 부문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은 그간 여러 차례 전달되었다. 다만 각 부문계획의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지난 십여 년 동안 독일환경생태계획을 국내에 소개하며 용어 번역에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 중에 개념을 가장 여러 번 고쳐 잡은 것이 『란트샤프츠빌트Landschaftsbild』이다. 경관미, 경관어메니티 등으로 번역되다가 2016년 4월 독일에서 개최된 전문가 워크숍을 기해서 『Landschaftsbild = 풍경』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풍경이 가장 적합한 용어라는 결론을 내린 데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

■ 독일어의 『란트샤프츠빌트Landschaftsbild』 개념¹⁾

독일어의 『란트샤프츠빌트Landschaftsbild』는 Landschaft (경치, 풍경, 경관)와 Bild (그림)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얼핏 풍경화風景畵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풍경화의 경우 Landschaftsgemälde 혹은 Landschaftsmalerei라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줄여서 Landschaft 혹은 Landschaften 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Landschaft, 클로드 로랭의 Landschaft 등등. 이 경우 란트샤프트 만으로도 풍경화라는 뜻이 전달된다.

그에 반해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란트샤프츠빌트Landschaftsbild”는 독일에서 자연보호가 시작되면서 합성된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서 환경생태계획, 도시계획 및 지리학 분야에서만 쓰고 있는 전문용어에 속한다.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도 용어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Scenery 혹은 단순히 landscape로 번역되고 있다.²⁾ 예를 들어 베를린 공대의 Stefan Heiland 교수 등은 영어로 발표한 논문에서 란트샤프츠빌트를 scenery로 표현하고 있다.³⁾

독일에서는 란트샤프츠빌트를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한 경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성격 (특징과 구조, 아름다움)이 이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지식, 정서, 심리적 상황 등의 맥락 속에서 느껴지고 해석되어 의식에 투영된 총체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란트샤프츠빌트Landschaftsbild를 ”주관적인 미적 체험의 산물

1) 2014년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고정희, 베를린의 환경생태프로그램 · 베를린의 토지이용계획. 2014 자료집 중 제 4부 pp. 127-128 참조.

2) 온라인 독-영 사전 linguee. 이 사전에서는 단지 단어만 번역한 것이 공문이나 논문에서 실제로 번역된 사례를 모두 나열하고 있으므로 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3) Stefan Heiland 교수가 2013년 환경부와 국토부의 독일 방문 시에 발표한 자료

“로 정의되기도 한다.⁴⁾ 예를 들어 고향산천의 경치가 그리 빼어나지 않더라도 낮익고 푸근한 그림으로 다가오는 경우 혹은 공장지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공장 굴뚝을 보고 집을 연상하고 안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한국어에서의 유사한 개념들 - 경치, 경관, 풍경

- 『경치景致』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산, 바다, 강, 들 등 자연의 모습을 뜻한다.
- 『경관景觀』의 국어사전적 정의를 빌자면,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즉 ‘경치’(景致)와 같은 뜻이거나 혹은 ‘아름다운 경치’로 순화한 것을 말한다. 또한,
 2.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한다. 로 설명되고 있다.⁵⁾

이는 오히려 독일어의 란트샤프트Landschaft에 부합되는 개념이다.

- 『풍경風景』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풍경’과 같이 자연경관의 범위를 넘어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사전적으로도 “어떤 정경이나 상황”을 함께 일컫는다고 정의된다.⁶⁾ 또한 풍경화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풍경은 이미 그림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란트샤프트빌트에 더욱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관점에서 경치 혹은 경관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풍경으로 인지’된다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어의 란트샤프트빌트 역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투영된 그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⁷⁾

경관도 인위적인 면을 감안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정서나 상징성 등과는 무관하며 그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다. 또한 국내에서 소위 ‘경관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등장하며 외부에 설치하는 시설물 디자인을 일컫는 용어로 굳어져 그 개념이 크게 왜곡되었다. 지금까지 란트샤프트빌트를 경관으로 번역해왔으나 곡해될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으므로 좀 더 부합되는 개념을 찾아야 했고 ‘그림’을 암시하는 풍경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를 통해 란트샤프트는 → 경관으로 란트샤프트빌트는 → 풍경으로 개념을 확립하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참고로 Concil of Europe에서는 landscape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Landscape’ means an area, as perceived by people, whose character is the result of the action and interaction of natural and/or human factors.” (Council of Europe 2000a)

“Landscape’ is defined as a zone or area as perceived by local people or visitors,

4) Roth 2006, p. 48

5) 네이버 국어사전

6) 네이버 국어사전

7) Wenzel 1991, p.19, in: Roth, Michael (2006) p. 49

whose visual features and character are the result of the action of natural and/or cultural (that is, human) factors. This definition reflects the idea that landscapes evolve through time, as a result of being acted upon by natural forces and human beings. It also underlines that a landscape forms a whole, whose natural and cultural components are taken together, not separately.”(Council of Europe 2000b)

종합적으로 경관과 풍경의 상관관계, 즉 사람의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경치가 서로 융합되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아래 그림에 도식적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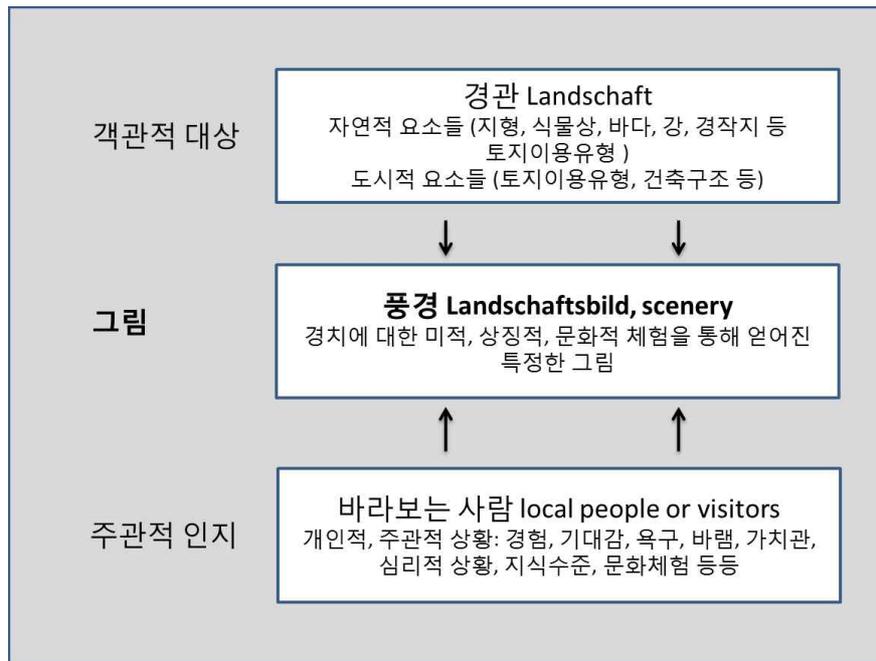


그림 3. 사람의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경치가 서로 융합되어 '그림'이 탄생하는 과정. 출처: Werner Nohl 2001:44

1.2. 풍경의 분석과 평가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혹은 자연침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풍경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칠 수 없고 이를 보호매체로 간주하고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고충이 따른다. 분석과 평가는 환경생태계획에서 핵심을 이루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우선

- 풍경분석을 통하여 후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걸러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한다
- 평가에는 기준이 선행해야 한다. 이 기준은 법적 근거하에 전문적 학술적 표준들을 종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평가의 대상을 확정하고 각 대상별로 어떤 구체적인 성격들을 선별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좌우된다.

■ 풍경평가의 법적 근거

연방자연보호법

제 1 조 4 호: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
	“자연과 경관은 그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위한 근거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중략] 4 호: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 고유한 성격 (독특함)과 아름다움 및 휴양가치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 2 조 1 항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13 호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 고유한 성격과 아름다움 및 휴양가치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고유의 특징적 구조와 요소를 보존하거나 더욱 발전시킨다. 경관의 체험 혹은 휴양가치에 미치는 영향들은 미연에 방지한다. 휴양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하고 꾸미며 접근성을 보장한다. 무엇보다도 취락지에서 가까운 곳에 충분한 휴양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휴양에 속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친환경적 스포츠도 포함된다.”
14 호	“특히 소중한 역사문화 경관과 부문 경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문화재 및 건축 및 토양문화재 등은 지켜야 한다.

풍경의 주관성으로 인해 과학적, 객관적 접근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풍경에서 얻는 체험과 느낌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군집주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생태계획에서 중요한 분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1) 다양성, 2) 고유성, 3) 아름다움 및 4) 휴양가치 등 네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준은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풀이되고 있다.“⁸⁾

■ 풍경의 다양성

여기서 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용유형의 다양성, 다양한 체험의 가능성, 구조적 다양성, 자연지형의 다채로움, 계절별 변화 등을 말한다.

■ 고유성

다른 풍경과 혼동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연적, 지리지형적 특성 외에도 사람의 이용으로 인해 매우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관, 역사 문화적으로 그 변천사가 매우 독특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정의하기는 몹시 어렵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풍경미학 내지는 경

8) Lexikon der Geographie: *Landschaftsbild*. Hg. v.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Online <http://www.spektrum.de/lexikon/geographie/landschaftsbild/4569>

관미학(landscape aesthetics) 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⁹⁾ 하나의 풍경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이 융합되었을 때 사람들이 대개는 ‘아름답다’라는 말 한 마디로 반응한다. 이런 풍경은 총체적 느낌에 끌리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요소들로 (폭포 등) 인해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 휴양가치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풍경의 휴양가치 역시 점점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휴양가치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풍경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3. 역사적 고찰

■ 배경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바라보고 이를 아름답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문명의 발달과 병행하여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연을 일구며 농경생활을 하던 시절은 자연이나 경관과 너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정서가 나타나지 않았었다.

도시문명이 시작되며 자연경관에서 삶이 분리되어 나오자 비로소 자연과 경관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림 4. 라인 강 골짜기가 깊이 내려다보이는
드라켄펠스 산 (용산). 독일 최초의 자연보호구역.
© Túrelío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풍경정원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훼손한 경관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자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경관관리가 중요한 국가적, 지역적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여기서 다시 조화로운 도시계획, 국토 가꾸기의 개념이 싹텄다.

독일의 경우, 바로 여기서, 즉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가꾸자는 경관 미학적 차원에서 처음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되었다.¹⁰⁾ 이는 풍경이 곧 최초의 자연보호대상이었다는 뜻이 된다.

1922년 라인 강변 일곱 산맥의 드라켄펠스 Drachenfels (龍山)가 독일에서 최초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본에서 조금 남쪽으로 치

9) 18세기 영국 풍경정원의 탄생과 함께 풍경을 아름답게 하거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방법론들이 모색되었다. 이것이 결국 자연보호와 결부되어 중요한 자연의 요소로 풍경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확산되었다. 풍경의 아름다움이 자연보호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Wener Nohl이 이 방면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10) Roth 2006, p.51

우친 곳, 라인 강의 좌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자연보호구역 지정의 우선 목표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었다. 라인 강변에 우뚝 선 드라켄펠스는 그 정상에 중세의 고성 폐허, 19세기 말에 조성되었으나 중세를 모방하여 동화 속의 성처럼 축조된 드라켄펠스 성 등의 유적지와 더불어 경사면에 넓은 포도밭이 펼쳐지고 있어 자연과 사람의 자취가 서로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과 정취를 자아낸다.

이 무렵 경관미학을 주제로 삼은 서적들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그 중 Theone는 공감각 (共感覺, 독: Synästhesie, 영: Synesthesia)과 상징적 감각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람이 경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그림 5. 19세기 말에 축조된 드라켄펠스 성. 중세의 성을 재구성했다. © Tohma

■ 현대적 풍경분석과 평가 - 1967년 이후

1967년 이후 그간 위의 드라켄펠스의 경우처럼 미학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던 풍경보호에 풍경의 휴양기능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Keimstedt가 1967년 풍경의 휴양기능을 강조하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근 십년간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글들이 발표되었다. 다만

1974년부터 환경생태계획이 도입되며 풍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나 객관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풍경을 미학적 관점과 휴양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기법이 널리 통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자연침해조절 절차에서 풍경의 훼손을 분석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기법과 이론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각 연방주나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고안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산술적 평가방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으며 그에 대한 찬반론이 치열한 담론으로 번져갔다.

1990년대 그 결과로 아래와 같은 방법론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라이트빌트Leitbild론)

-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풍경에 대해 우선 『라이트빌트Leitbild』, 즉 최적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때 무조건 최고치를 목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러 여건을 고루 감안하고 저울질한 뒤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표를 라이트빌트Leitbild라고 한다. 이 역시 합성어로서 라이트Leit는 영어의 리드lead 혹은 가이드와 유사한 의미이며 빌트Bild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을 뜻한다. 이 역시 독일에서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도 딱히 합당한 용어를 발견하지 못해 컨셉, 모델 등으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지의 풍경을 살피고 주변의 여러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 뒤 “숲속의 주거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얻어지면 바로 이 “숲속 주거지”가 라이트빌트가 된다. 이를 굳이 컨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최적의 것이기 때문이다. 컨셉은 반드시 최적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 최적의 상황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개발한다. 각 지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방법론을 찾아낸다. 물론 복잡하고 다원적인 방법이지만 각 지표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합당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000년도 이후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풍경분석과 평가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가 왔다.

-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동원하여 사진과 같은 장면들을 3D로 재현한 모델만들기가 가능해졌다. - 특히 자연침해조절 절차에서 최적의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침해 후의 상황을 비주얼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을 통한 공공참여와 정보공개가 활발해지면서 대중의 의견이 강하게 수렴되어 계획담당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치던 현황이 많이 완화되었다.
- 지오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복합적인 평가대수법이 제안되기도 하고 컴퓨터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다.

■ 풍경 분석 평가방법론의 최신 경향

- 현재 거의 200 가지에 육박하는 방법론들이 난무하고 있어 거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빚고 있다. 그중에는 매우 국지적이고 전문적인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산지대에 임업용 도로를 조성할 때 어떻게 이를 미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도 있다.
- 그 중 2001년도 라인란드 팔츠 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코너만 Konermann의 방법론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널리 수용되고 있다.
 - 환경생태프로그램 (혹은 주에 따라서 환경생태기본계획)의 차원에서 대상 도시 전면적의 풍경을 분석하여 일정한 “풍경 단위”로 구분, 각 풍경단위를 분석 평가하며
 -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정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베를린 환경생태프로그램의 풍경 부문도는 위의 코너만 방식을 기초로 하여 베를린의 상황에 부합되게 응용한 방식을 따른다.

2. 베를린 환경생태계획프로그램 풍경 - 시너지』 부문

2.1. 분석 및 평가

도시는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건축지와 비 건축지가 유기적으로 서로 융합하여 이루어진다. 오랜 세월이 걸쳐 건축지와 그 주변의 경관 및 녹지 환경이 서로 단단히 엮여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이 풍경이다. 그러므로 도시풍경은 도시형성 및 변천과정의 산물이다. 베를린의 환경생태프로그램의 풍경프로그램에서는 건축지 및 비 건축지의 형성과정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또한 풍경의 역사를 함께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풍경, 즉 내 동네, 내 거리에서 안도감과 동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베를린의 도시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풍경분석과 평가를 위한 기준은 위의 1.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름다움, 고유성, 다양성 그리고 휴양가치의 네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다만 베를린의 경우 휴양과 녹지이용에 대한 별도의 부문 프로그램이 존재하므로 휴양가치는 본 풍경분석 기준에서 제외했다.

함부르크의 경우 풍경과 휴양을 하나로 엮어 다루고 있다. 각 도시의 성격에 따라 어느 방법이 합리적인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교를 위해 함부르크 풍경 휴양프로그램을 4장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다양성과 고유성은 성격이 서로 다른 구역을 비교할 때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름다움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 투영되는 그림이므로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의 기대감, 정서 및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범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즉 도시 전체인가, 구역별, 거리별로 나누어 고찰하는가에 따라 여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환경생태프로그램에서는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감안하여 발전 목표를 고찰하고 과제를 설정했다.

2.1.1. 방법론과 자료출처

베를린이라는 대도시의 경우 풍경은 곧 도시 공간적 구조, 시설 및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양상에 따라 정의된다.

건축지의 경우 오픈스페이스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 가로 공간, 광장, 녹지 및 식물상 전체 - 이들이 건축지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낸 전체 풍경 역시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구릉지나 계곡 같은 지형적 특성¹¹⁾ 및 모든 하천과 호소 역시 풍경으로 보고 포함시켰다.

■ 오픈스페이스의 분포와 현 이용현황

오픈스페이스의 분포와 현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환경정보지도를 분석했으며 이를 항공사진과 비교하였다. 그럼에도 불분명한 구간은 직접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했다

- 06.01 건축지의 실제 이용현황도
- 06.02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
- 항공사진
- 현장 조사

11) 베를린은 북유럽 특유의 빙하기 저지대에 형성된 도시이므로 지형변화라고 딱히 일컬을 것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경사진 곳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 계획된 건축사업과 공원녹지

■ 하천 호소

하천과 호소 역시 환경정보지도를 통해 일단 위치를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현장답사로 재검토했다. 모든 하천과 호소를 풍경 프로그램에 수렴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작은 연못 등은 제외) 구조적으로 도시풍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만 감안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 모든 하천
- 호수와 연못, 계류 중 빙하기에 형성된 것
- 용수로 등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

■ 도시구조를 결정짓는 풍경요소

도시구조를 결정짓는 풍경요소 역시 베를린 환경정보지도 (Umweltatlas)와 하천지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로 했다. 철도, 전철시설의 경우 우선 항공사진을 분석했고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했다. 대로변의 중요한 광장들은 도시구역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베를린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했다.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자연 공간적 여건, 문화경관의 유형 및 취락지의 역사적 맥락 등이 고려되었다.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 하에 분석하고 평가했다:

- 자연 공간적 성격, 지형, 경관의 맥락, 오픈스페이스 혹은 각 경관요소 들의 인지성
- 비 건축지의 문화사적 특성, 현 상태 및 전형적인 요소들
- 주거지의 변천사, 주거지 내의 도로망, 산책로,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전형적인 건축, 녹지, 오픈스페이스 구조. 특히 성격이 유사한 주거지들의 군집, 수목배치현황
- 하천과 계류가 이루는 구역 경계, 선형 식생 및 선형경관요소의 유무와 현황.
- 랜드 마크 및 방향성을 주는 요소들 (도시 광장, 지형의 변화 및 하천, 호수 등)과 이들의 분포현황

이에 근거하여 풍경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 다루었다.

- 각 구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개선방안, 핵심과제 제시. 이때 도심과 거주지를 서로 구분하여 다뤘다.
- 풍경 요소들은 일단 현황을 위주로 하여 표현했다. 대표 풍경과 하위구조로 구분했으며 도심과 거주지 특성을 정의하는 문화경관, 자연적 요소 등을 서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각 공간별 발전목표와 구현방안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되었다.
-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할 구역들을 별도로 정의하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2.1.2. 도시구역을 정의하는 오픈스페이스와 경관요소들

베를린의 오픈스페이스와 경관요소의 형성, 분포 내지는 외관은 취락지의 형성과 발전과정 및 주어진 자연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베를린은 빙하기에 형성된 얇은 곡곡의 모래땅과 양변의 낮은 구릉지에 형성되었다. 이를 『우르슈트롬탈 Urstromtal』이라고 하며 베를린 중심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한다. 척박한 토양이 지배하는 구간에는 숲이 형성되었고, 비교적 양질의 토양이 분포된 곳을 밭과 목초지로 이용하면서 이곳의 경관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경관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 베를린 도시 풍경은 크게 도시의 성격이 지배적인 곳과 거주지가 지배적인 구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외곽지대에 남아있는 문화경관, 자연경관의 흔적은 시 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넓은 숲과 경작지가 이에 속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풍경은 도시형성과정 및 건축의 변화상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베를린 도시구조와 건축양식 및 이에 따른 녹지구조의 변화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 베를린 도시구조의 변화상¹²⁾

베를린은 192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지금의 권역으로 확립되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20년까지 베를린은 지금은 도심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독일의 산업화와 함께 베를린 외곽지대에 무질서하게 공장지대·산업지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종지부를 찍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꾀하기 위해 1862년 『대도시 베를린』이라는 도시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최초로 미래도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것이 베를린 도시계획의 출발이었다. 당시 프로이센¹³⁾의 건설부장관이었던 호브레히트Hobrecht가 발의한 것으로서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따서 호브레히트 플랜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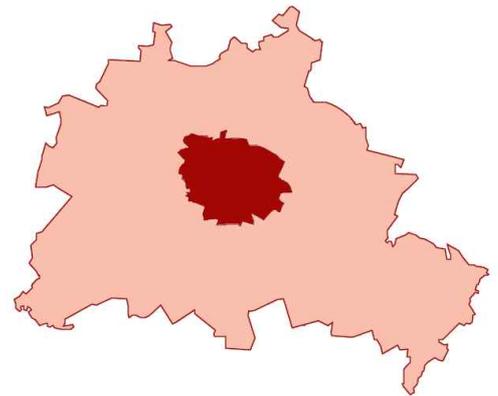


그림 6. 1920년 이전의 베를린 (자주색)과 현재 영역 © xyboi

1920년 베를린 광역권 계획이 수립되며 주변에 존재했던 농촌마을들을 베를린에 편입하여 지금의 영역에 이르게 되었다. 베를린의 발전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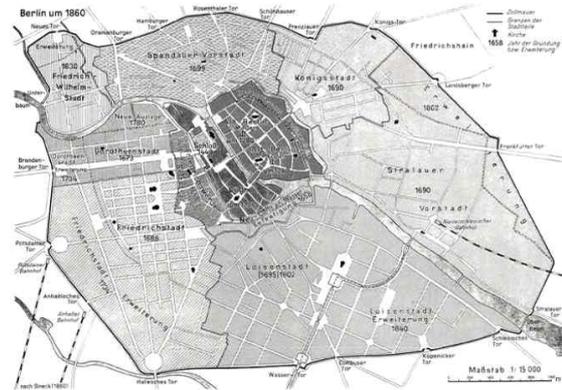
시기	도시 권역의 상세 변화상
----	---------------

12) 2014년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고정희, *베를린의 환경생태프로그램 · 베를린의 토지이용계획*. 자료집 중 제4부 pp. 126-142 참조

13) 당시엔 아직 프로이센 왕국이었고 1871년에 비로소 독일어권이 통일되며 독일제국이 탄생했다.

1. 1860년대

위의 자주색 구간만 상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중앙의 짙은 회색 구간이 슈프레강에서 시작된 구 베를린 핵심구간이며 이후로 1860년대까지 서서히 영역을 넓혀갔다. 이 구간이 현재도 베를린 도심지를 이룬다. 그중 동쪽 구간에는 지금도 넓은 정원들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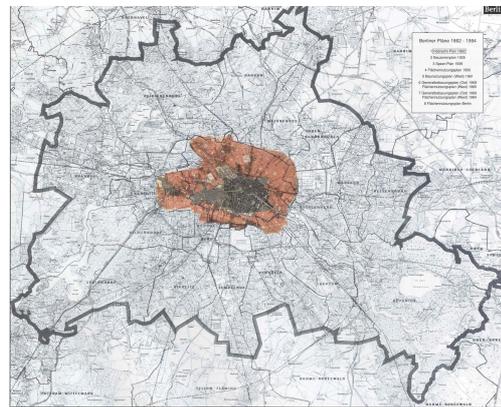


2. 1862년에 수립된 "호브레히트 플랜"

도심과 도심외곽에 들어선 산업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붉은 색)

현재의 베를린에 비해 현저히 작은 면적이지만 최초로 수립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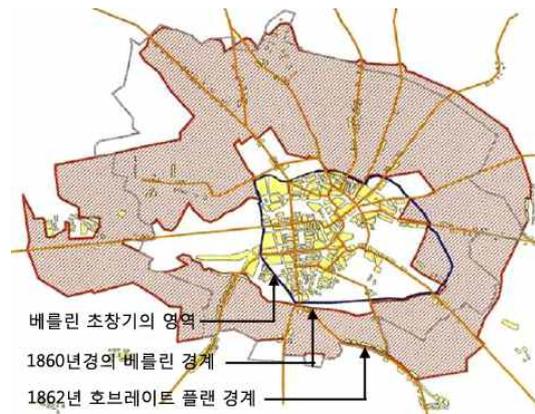
- 4백만 도시를 내다보고 설계
- 본래 형성된 핵심 구간은 계획에서 제외



호브레히트 플랜의 대상지 영역과 현 베를린 비교 © 베를린 도시환경부

위의 호브레히트 플랜 확대

- 내부의 흰색 구간은 원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계획대상에서 제외
- 붉은 색으로 빗금친 구간이 계획 및 계획 대상지



베를린 초창기의 영역
1860년경의 베를린 경계
1862년 호브레히트 플랜 경계

- 구간별 상세도면 14 장
- 구간별 주요 도로, 광장, 도시정원의 위치 및 건축제한선 규정
- 도시블록의 큰 규모와 대로는 현대의 교통량도 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됨
- 다소 현황에 적응시키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베를린 도심지의 기본구조로 남아 있음



2. 1909 년에 수립된 “안센 플랜” -그린벨트 및 그린네트워크

- 1910 년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 변한 베를린의 새로운 면모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
- 천 만의 도시를 내다보고 설계함. (2015 년 현재 베를린 인구 350 만이므로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수정하지 않고도 많은 인구 수용이 가능)
 -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문제 심각
 -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지시스템 개발 필요성 대두
 - 1909 년 수도권역 기본계획 공모 헤르만 안센 Hermann Jansen 작이 당선
 - 안센의 기본계획에 도시를 감싸는 그린벨트와 방사선으로 도심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 제안
 - 도시기본계획에 녹지시스템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로 이후 모든 도시계획의 모범이 됨.
 - 지금도 안센의 녹지기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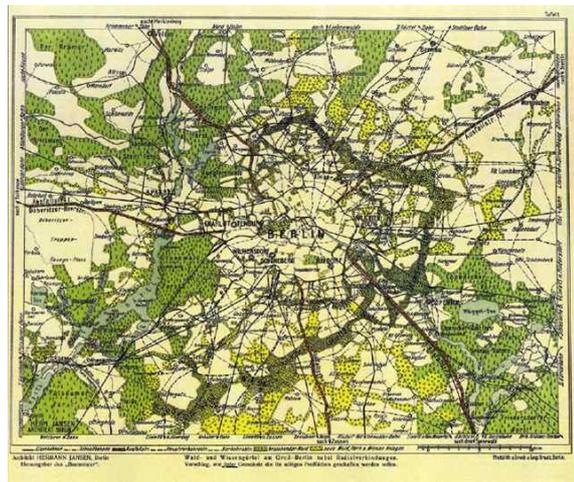


그림 11. 1909 년 헤르만 안센이 계획한 베를린 도시기본구조와 녹지시스템. 지금도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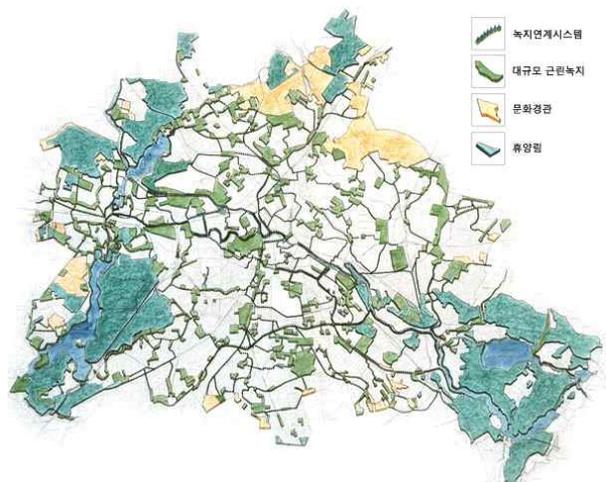


그림 12. 2004 년 녹지현황. 안센이 제시한 녹지기본구조가 거의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25 년에 수립된 건축지구계획

- 1 차대전 (1914-1918) 이후 파괴된 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개념
- 주거지, 보호구역, 산업지구, 도시 숲, 녹지로 구분
-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도시밀도가 낮아짐 (용적률과 건폐율이 순차적으로 낮아짐)
- 오픈스페이스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공간이용: 전반적으로 용적률 감소
-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건축용지를 모두 9 등급으로 분류
 - I, II 등급은 오픈 건축방식으로 외곽지대에 적용되며 정원과 녹지비율이 높아
 - 나머지 7 등급은 폐쇄형 (도로쪽으로 입면이 막힌 타입)
- 건축선 지정. 도로에서 볼 때 입면이 나란히 줄을 맞추는 개념
- 등급에 따른 등수와 고도 필지 내 건축배치방법 등 지정하여 조화로운 도시풍경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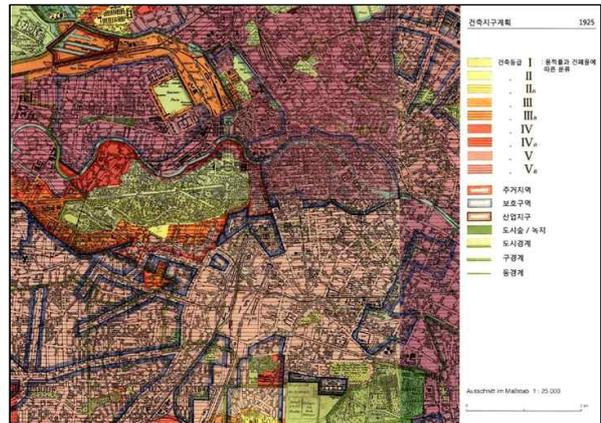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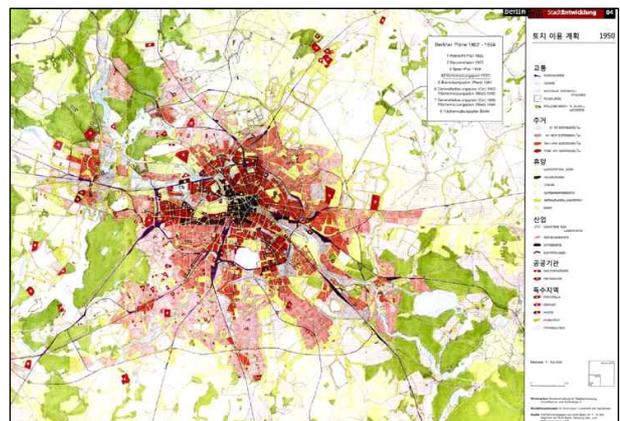


그림 13. 1925 년에 수립된 건축지구 계획도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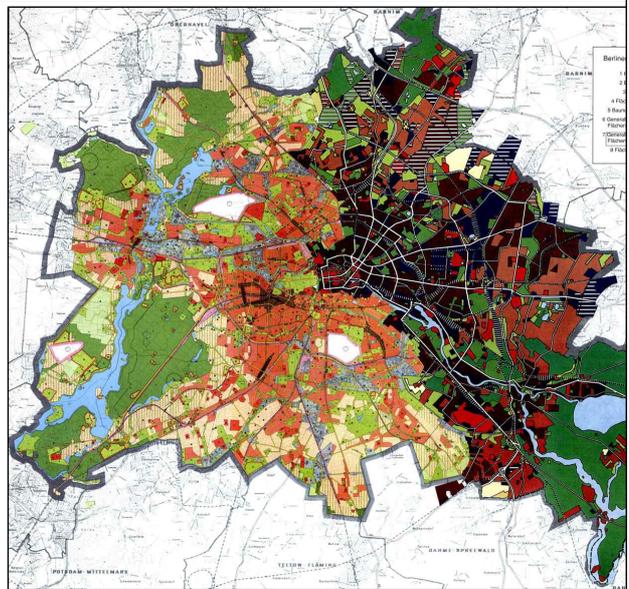
4. 1950 년 서베를린에서 “통일토지이용계획” 수립

- 동서가 이미 갈라진 상황이었으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전 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계획 수립
- 4 백만 인구를 목표로 함 (현대인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조절)
- 아테네 현장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계획 이념 반영
- 주거지/공상업지/산업지/녹지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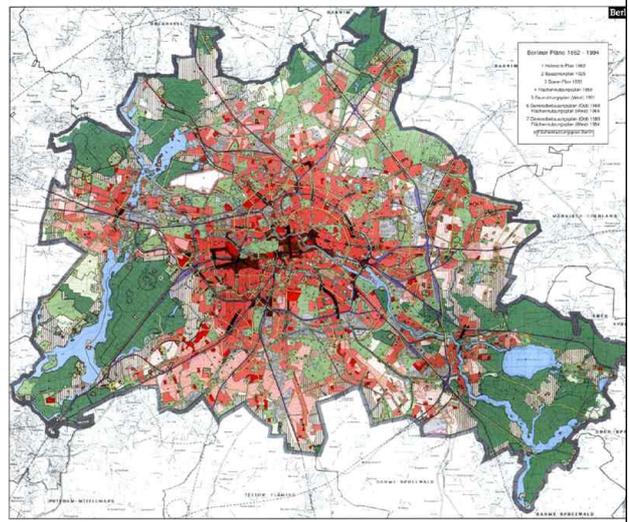
5. 1989년까지 동서 베를린 양쪽에서 별도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동서의 건축 개념에 서로 격차
- 동베를린의 경우 대형 고층아파트단지 다수 건설
- 서베를린은 6층 이상의 건물은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건설을 허용치 않았음. (예외: 1950-60년대 도심 상업지대 및 신개념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 몇 개소)
- 녹지시스템은 동서 모두 유지하고 있었음



5. 1994년 통일 베를린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서베를린의 기준에 따라 재정비



■ 도시발전사의 시대구분과 그에 따른 6가지 주거지 유형

■ 그윈더차이트 (1870년부터 1918년 까지)

그윈더차이트(Gründerzeit)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19세기 중후반, 즉 1840~1873년 사이의 경제부흥시기를 말한다. ‘건설의 시대’라는 뜻이며 ‘산업혁명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중앙 유럽에서는 1840년에 시작된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1848년 독일 혁명을 그윈더차이트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일이 통일국가로 탄생했으며 프랑스에서 지불한 전쟁배상금 등 많은 자본이 밀려들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경기가 번영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1873년 주식시장이 붕괴하며 그윈더차이트의 막을 내렸다.

문화사 및 건축사적 관점에서는 1870년부터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까지를 그윈더차이트로 본다. 이때까지 독일의 산업화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에 도시가 팽창하며 건축붐이 일어났고 베를

린의 도시풍경에 큰 변화가 왔다. 그 때까지 아직 마을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업중심도시로 급속히 성장했다.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많은 노동 인구들이 베를린으로 유입되었고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1862년 호브레히트 플랜이 수립되어 도로경계선, 건축선, 블록의 규모와 마당의 최소크기, 건물의 고도 등이 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880년에서 1918년 사이에 전철순환로 내부에 5-6층 규모의 블록경계형 건축과 중앙의 마당 (Hof)으로 이루어진 특유의 주거지 구조가 탄생했다. 도시 광장과 도시정원, 공원과 묘원 등의 시설 역시 적절히 배치되었다.

전철순환링, 즉 도심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는 건축 밀도가 조금 낮게 규정되었으므로 중정이 비교적 큰 4층 규모의 블록형 건축과 빌라형 건축이 들어섰다.

블록경계형 건축:

이 시기의 대표적 도시건축적 양식은 블록경계형 Blockrandbebauung 이다. 도시설계 시 우선 도로를 격자형으로 교차시켜 구획을 나누는데 이렇게 탄생한 구획을 블록이라고 하며, 각 블록을 사방에서 둘러싸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블록경계형 건축이다. 이때 도로가 건설의 기준이 된다. 이미 고대에 개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유럽 도시의 모양을 지배하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이다.

- 블록경계형 건축의 사례:



그림 17. 고대 로마시대의 도시 Augusta Treverorum 의 모형. 격자형 도시구조로 각 블록을 사방에서 건물로 둘러쌌다. © Stefan Kühn



그림 18.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공사진. 격자형 도시구조가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 Alhzeiia



그림 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블록경계건축. © Swimmerguy269



그림 20. 독일 함부르크의 블록경계건축 © Martina Nolte



베를린 중구 중앙의 방송탑을 중심으로 북쪽은 모두 블록경계형으로 건설되었다. © Ralf Roletschek



그림 22. 대개 3-6 층의 규모이며 사진 속처럼 코너를 돌아가는 독특한 건물이 등장. 도심의 블록경계형 건축은 대개 1 층에 상점이 있고 2 층부터 아파트이다. © Beek100

■ 1920년 이후: 대도시 베를린

1차 대전이후 1920년 주변 마을들을 편입시켜 베를린이 대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때 주택 건축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 개인 개발사업자의 역할이 대폭 감소되고 주택공사나 조합 등에서 주택사업을 도맡게 되었다. 이때 도심은 이미 포화된 상태였으므로 전철순환로 외곽에 규모가 큰 주거단지들이 들어섰다. 앞의 도시구조발전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5년 건설법과 건축지 이용법에 의거 주거단지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즉 1920년대와 1930년대는 도시설계 및 주거건축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온 중요한 시기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단지 내에 넓은 녹지를 제공하고 시민공원, 주말정원지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덕에 도심을 둘러싼 환형의 녹지띠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 외에 일부 남서쪽 구역에는 삼림, 과수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 해당 구역의 본래 경

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래의 사진들은 베를린 변두리에 1920년-1930년대에 조성된 주거단지. 폐쇄된 블록경계형에서 벗어나 녹지 비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1930 년대에 건설된 후프아이젠 (말굽) 주거단지 © Sebastian Trommer



그림 24. 후프아이젠 (말굽) 주거단지 진입광장 © BenBuschfeld



그림 25. 톰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거단지 © Mangan2002

■ 1945년 이후: 분단도시

2차 대전 때 베를린 건축의 약 30%가 파괴되었다. 전후 도시복구사업과 함께 1) 자동차 중심의 도시, 2) 사회복지적 도시건설이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종전과 함께 동서베를린이 분단되었으므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 서베를린:

서베를린은 마셜 계획을 수립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파괴된 도시구역을 복구할 수 있었다. 당시 복구의 목표는 1) 도심의 밀도를 낮추고 2) 주거지에 높은 녹지율을 보장해 주며 3) 도시기능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건축가들과 도시설계가들 사이에서 2차 대전 당시 폭격 피해가 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도시 밀집현상 때문이었다는 결론이 얻어져 이와 같은 새로운 도시발전 목표가 설정된 것이다.

- 도심: 파괴된 건물을 하나씩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개축. 혹은 블록 전체를 들어내는 재생사업. 블록 내의 부속건물, 뒷건물 등을 정리하여 중정들을 서로 연결하여 큰 중정 녹지 조성.
- 변두리에 넓은 녹지를 포함한 대형 주거단지들과 산업지대가 건설됨.
- 1970년대 말 이후 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시 본래의 도시설계 개념으로 복귀. 도시중심지의 밀도를 높이기 시작했으나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나지에 신축하는 선에 머뭄.

▪ 동베를린:

동베를린은 연합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배상금을 내야 했으므로 1961년 이후에야 전쟁피해 복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산업적 건설방식이 개발되었다. (조립식 고층아파트)

- 자본주의의 산물인 전통 건축양식을 모두 철거하고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대체할 계획

을 수립했으나 경제난으로 완성하지 못함

- 주택난이 심해지자 1971에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인민들을 위한 대형 신도시 (고층아파트 단지) 건설
- 통일 직전 전통적 건축방법과 소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재생사업 시작



그림 26. 서베를린의 대표적 전후 주거건축 한자아파트 Hansaviertel © pa/d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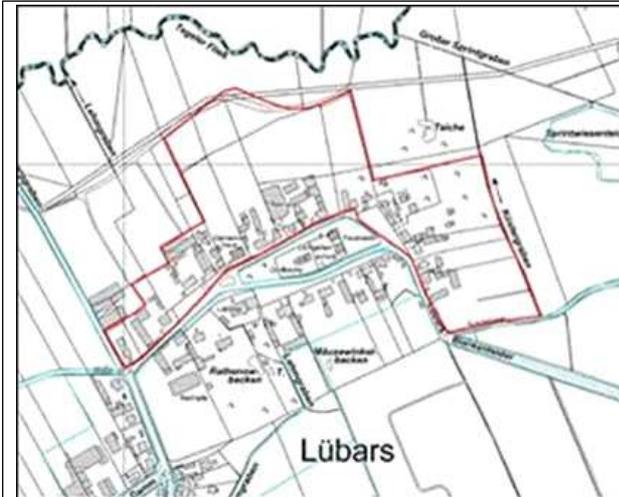
그림 27. 동베를린의 대표적 대형아파트단지 헬러스도르프 © Morgenpost

■ 1989년 이후: 통일도시

- 다시 합쳐진 도시 중심가 재생사업
 - 새로운 중심가, 포츠다머 플라츠, 소니센터, 다이물러 시티 등 건설
 - 정부청사단지 건설
- 구 군사시설, 폐지된 산업시설 등의 재생사업: 친환경 신도시, 과학도시 등 신개념의 신도시 건설
- 구 동베를린의 대형고층아파트단지 재생사업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경만 향상)
- 2000년도까지 대형건설사업 어느 정도 완료
- 구 동베를린 번두리에 다세대주택, 쌍둥이주택 등 건설 진행 중
- 도심 밀도 높이기 및 외곽전원지대 보호하기 개념 확립
- 베를린 장벽을 따라 존재했던 무인지대의 나지와 철도부지 등에 제 4의 자연 발생 - 귀중한 비오톱이며 잠재녹지로 인식. 공원녹지, 옥외기념관 등으로 조성

표 5 도시발전사의 시대구분과 그에 따른 6 가지 주거지 유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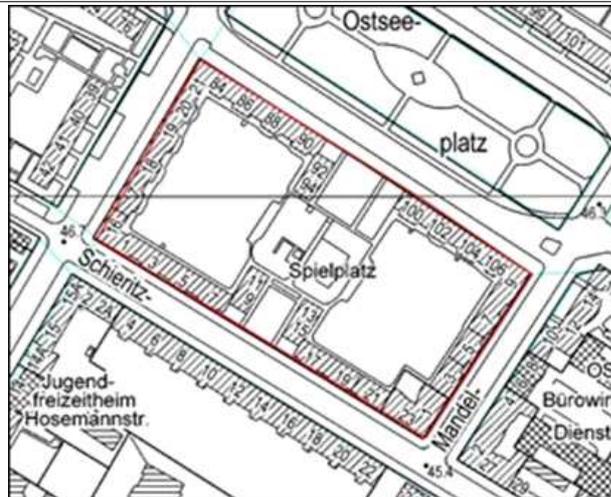
--	--



1. 도시권에 편입된 마을의 구조가 아직 일부 남아있다.



2. 그린더차이트 (1870-1918) 사이에 건설된 도심의 밀집된 블록경계형 주거지. 블록내부의 좁은 마당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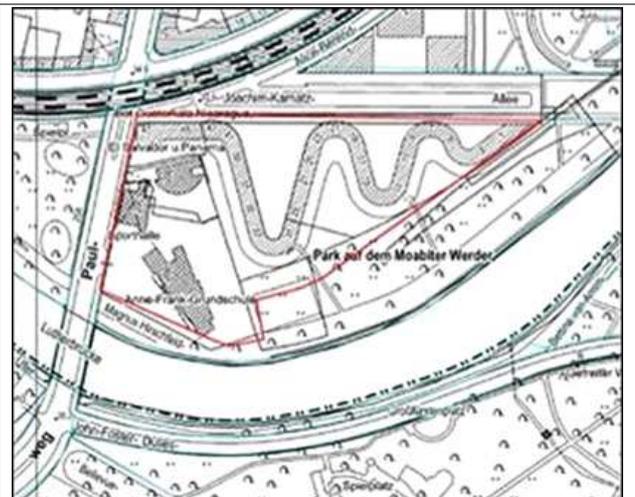
3. 1920-1930 년대 건설된 블록경계형. 중앙의 넓은 녹지가 특징.



4. 1945 년. 이차대전 종전 이후 파괴된 구역을 복구하며 다양한 건축양식이 섞인 곳



5. 1960 년-1980 년대에 건설된 대형아파트단지 4-11 층



6. 1990 년 통일 이후에 건설된 집합주택

■ 문화경관

경작 및 목초지 이용으로 형성된 문화경관의 퀄리티는 규모와 함께 공간적인 맥락, 축조물 등 장해요소나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들, 즉 수목군락, 띠형 자연생단, 연못, 용수로, 가로수길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베를린에 존재하는 경작지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주 작은 부분만이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전에 베를린 외곽의 들을 하수관개용 들판으로 이용했었다. 이 면적들은 지금 단일경작지로 변했거나 아니면 삼림으로 전환되었다. 부분적으로 [마치 염전이나 논을 연상시키는] 격자형 구조와 밭두렁, 용수로 등의 옛 구조가 보존되어 있다.

■ 문화경관이란

문화경관의 개념은 그 정의가 확실치 않으며 다양한 이론이 있다. 크게 보면 자연경관이 사람에게 의해 영구적으로 변화한 것을 일컫는다. 도시경관이나 산업경관 등도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라 보아야 한다.

문화경관에 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다.

- 수량적 정의 :

“현재 지구의 모든 자연경관이 실은 문화경관이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된다.

- 종립적 시선:

“문화경관이란 사람의 토지이용에 의해 확연히 변화되고 여전히 변화되어 가는 공간이다. 문화경관들은 생태적으로 가치 높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깊은 애착을 느끼는 장소이다.” 14)

이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남북극이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사막, 열대지방의 밀림, 아시아의 스텝이나 툰드라 등은 문화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지역이라도 사람에게 의한 생태계 파괴, 자연 착취 등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경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취락지역, 전원경관, 도시경관, 거주경관에서 산업경관까지 문화경관에 포함시킨다. 이런 지역 내에 지금은 야생 경관도 한 때 사람이 이용했던 곳이면 문화경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전통적으로 널리 분포되었던 『먹이 숲』 15)이나 오래 된 자연보호구역도 문화경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지역들 내에도 어딘가 사람이 이용했던 흔적이 일부나마 남아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풍객이나 관광객들이 찾아들며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

14) Job, H.; Stiens G. (1999): Erhaltung und Entwicklung gewachsener Kulturlandschaften als Auftrag der Raumordnung. Einführung. In: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5./6.). / Curdes, Gerhard (1999): Kulturlandschaft als 'weicher Standortfaktor'. Regionalentwicklung durch Landschaftsgestaltung. In: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5./6.).

15) 먹이숲 Hutewald, Wood pasture: 전통적으로 숲 속에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풀어 풀이나 도토리, 버섯 등을 찾아서 먹게하던 곳을 말함. 숲으로 뒤덮여 있던 유럽에서 상당히 널리 분포되었던 축산 방식. 현대에 들어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건강한 축산업의 일환으로 혹은 관광지로서 먹이숲을 부활시킨 곳도 있다.

기도 한다. [이 경우 인위적 경관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지구의 50~70%가 문화경관에 속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그룹은 지리학자들이나 환경생태학자들이다. 이들은 미국 버클리 대학의 Carl Ortwin Sauer를 중심으로 한 소위 지리학파들로서 문화경관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 참가하게 되었다.

▪ **질적 개념:**

“문화경관이란 구식의 전통적인 경작행위를 통해 각인된 공간이며 오늘도 이에 준하는 식물상과 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화경관은 종이 다양하며 자연보호적 관점에서 보존할 만하다.”¹⁶⁾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는 “이상적인 경관”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자연보호적 관점에서 큰 역할을 한다. 기타 개념과 서로 구분하기 위해 역사적 문화경관이라거나 지역성 문화경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 15%의 경관이 거주지에 가까운 문화경관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중부 유럽의 문화경관으로 농업에 의한 이용이 지배적인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용 집중성이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면 안된다. 예를 들어 20세기 전반에 종이 매우 다양한 비오톱이 형성되었다. (습초지, 황야, 유실수 초지). 이들 경관은 이후 집약적 농업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유럽의 이런 역사적 문화경관은 자연천이에 의해 도달한 극상림보다 종다양성이 높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경관을 서로 분류할 수 있다.

▪ **문화경관의 체계:**

스위스의 지리학자 Hans Carol이 여러 개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문화경관의 위계를 세운바 있다.¹⁷⁾

진행형 문화경관 (지구전체)

인위적 경관 (인간의 행위에 영향 받은 경관)
자연에 가까운 경관 (인위적 영향이 적은 야생경관 / 변화되지 않게 보호된 경관)
문화경관
1. 역사문화경관 (황야, 해변가모래언덕, 먹이숲, 제 2 차 숲 (산불 등으로 숲이 파괴된 이후 사람들이 간섭하여 경제림으로 조성한 경우 등), 유실수 초지, 습초지 등
2. 경제문화경관
농경지 (포도밭, 목초지, 경작지, 유희지 등)
경제림
산업경관 (산업단지, 공업단지, 폐광산지, 산업폐부지 등)
3. 거주지 (전원도시, 마을 등)
4. 도시경관 (도심, 근교, 변두리 등)

16) Thomas Gunzelmann 2007 : 카셀대학 문화경관 온라인 정의 2014 : Dietrich Denecke 2005.

17) Hans Carol 1946

베를린 환경생태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문화경관은 위의 시스템 중에서 경제문화경관 중 경작지문화경관, 즉 좁은 범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 문화경관의 몇 가지 사례



매화마을 © 오기순



뤼네브르거 하이데의 황야풍경



모젤강 사면의 포도밭



저 푸른 초원위의 선형 수목군락



인도네시아의 테라스형 경작지



라인강 변의 중세 마을과 포도밭

[문화경관의 분석 및 평가결과는 『부록: 1. 경작지 문화경관』 참조]

■ 삼림

베를린의 경우 경작이 어려운 모래땅에 삼림이 많이 남아 있다. 자연적으로 소나무, 참나무류 및 기타 낙엽수로 이루어진 혼효림이 발생했으나 임업림으로 이용하면서 소나무 등 속성수를 많이 심었으므로 소나무 숲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토양의 성질이나 습기에 따라 다양한 하부식생구조가 형성되었다. 북쪽과 동북쪽 외곽에는 하수관개용 들판에 넓은 초지, 습지 및 삼림으로 이루어진 휴양경관이 형성되었으나 1980년대 중엽에 삼림으로 전환되었다. 이 면적의 일부는 열린 초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40. 베를린 자연경관구조 (출처: 베를린 도시환경국)

삼림의 풍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
- 숲 속의 빈터, 숲 경계지 식생 등의 구조적 다양성 및 수목의 연령, 층위구조의 다양성 추구
- 생물종 다양성

[삼림경관의 분석 및 평가결과는 『부록: 2. 슈판다우 림』 참조]

■ 하천 호소 등 물로 이루어진 풍경

■ 베를린의 물

베를린은 워터시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천과 계류 및 운하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베를린의 강은 서울의 한강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작은 규모이지만 다수의 천과 지류들이 흐르고 있어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면적으로만 본다면 58.9 km²로 전 도시면적의 6.6%에 해당한다. 크고 작은 교량이 600개로 유럽에서 베니스 다음으로 교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¹⁸⁾ 다만 강과 운하들이 모두 좁은 관계로 눈에 띄는 대교는 거의 없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다니는 교량이 대부분이다.

하천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베를린 자연경관적 특성에 근거하여 위의 그림 4에서 오랜 시절 교통과 운송수단으로 이용했으므로 운하를 만들어 이들 하천 사이를 서로 연결했었다.

18) 베를린 도시환경부 포털.



그 외에 대형 호수 3개소 및 크고 작은 연못과 호수들이 도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그중 아래 세 개의 하천이 강의 범주에 속하며 세 강을 합한 총 연장은 약 89km이다.

- 슈프레강
- 하펠강
- 다메강

이들 세 개의 강은 운하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운하의 총 연장은 약 67k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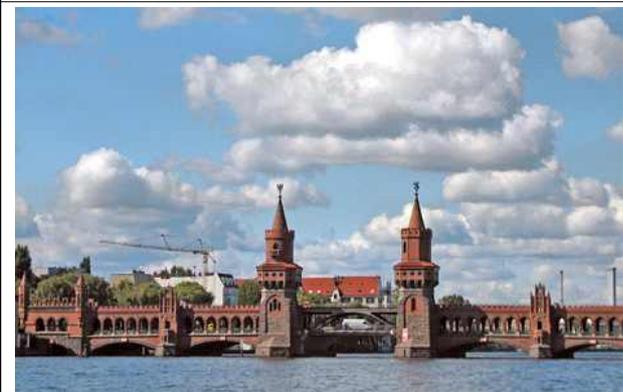
그 외에 계류, 천, 지류 등이 수없이 갈라져 나와 있으며 짧은 운하도 무수히 많은데 이들을 모두 합치면 연장 약 75km에 달한다.

위에서 언급한 리젤펠트, 즉 하수관개용 들판에 물을 보내기 위해 조성된 수로 역시 적지 않아 이들을 모두 연결하면 총 300km에 달한다.



그림 42. 베를린의 하천 호수 시스템과 운하 © ThirdspaceBerlin on Base of SenStadtUm

■ 베를린 물이 있는 풍경



■ 풍경 프로그램에서 관건이 되는 물의 요소들

이런 선형 풍경요소들이 도시 구조에 어떻게 작용하는 가는 각각 수경관의 모습과 천변식생, 천변의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본 환경생태프로그램에서는 베를린의 물로 이루는 풍경을 아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도시를 흐르는 하천과 계류
- 전원풍경을 지배하는 계류, 연못, 호수 등

하천정비, 제방, 천변 건축지 등은 도시 내의 하천풍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도심의 하천은 인위적으로 건설된 운화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슈프레 강변에 들어섰던 산업, 공업지 및 주거단지 등은 강에 바로 인접하여 건설되었다. 그 결과로 슈프레 강의 대부분은 그 흐름이 인지되지 않고 점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많게 되었다.

지형의 영향으로 베를린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도시 중심을 비스듬히 가르고 지나가는 우르슈트롬탈에 중요한 두 개의 강, 즉 슈프레강과 다메강이 흐르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테겔천 / 팡케천 / 불레천 / 밀렌플리스 등의 네 개의 천이 바르님 빙퇴석 구릉지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며 흐른다. 한편 하펠강 하류는 남서쪽의 텔도우 빙퇴석 구릉지와 서쪽의 나누엔 구릉지를 가른다. 이들 하천편의 풍경은 저지대 특유의 습초지, 저지대 오리나무 숲, 갈대밭 등이 지배적이며 한편 퇴적지의 구릉이 지금도 엿보이는 천변풍경도 간헐적으로 남아 있다. 집중적인 휴양이용, 물가에 바로 인접한 주말정원지대와 각종 기술시설들은 천변 풍경의 퀄리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천풍경의 분석 및 평가결과는 『부록 3: 테겔천변』 참조]

■ 기타 오픈스페이스

도시풍경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오픈스페이스들은 주거지대의 조성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들은 역사적, 외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될 수 있다. 많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에 높은 지하수위, 구릉지 사면, 계류 등의 자연경관적 흔적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공원 · 묘지공원 · 주말정원지대 · 간섭지와 유희지 · 선형녹지 · 도시광장 · 철길 · 용수로와 소호沼湖 등이다.

■ 베를린 공원의 유형:

베를린에 존재하는 공원들은 그 조성연대와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장원莊園 Gutspark:** 여기서 장원은 과거 대농이나 영주의 토지에 속했던 파크 형태의 정원을 말한다. 베를린 남서쪽의 브리츠와 북동쪽의 팔켄베르크 등에 아직 장원이 남아있다. 대개 장원은 마을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보존된 곳이 있다. 특히 매우 가치 높은 고목들이 남아 있다.



그림 51. 베를린 남서부 브리츠구에 존재하는 옛 영주의 성과 넓은 정원 (사진 출처: 왼쪽 SenStadtUm, 오른쪽 Wilfried Niemer)

- **바로크 정원:** 17세기말 ~ 18세기에 조성된 평면기하학적 바로크 정원에 속하는 것은 샤를로텐부르크 공원과 프리드리히스펠데 공원 등 2개소가 존재한다.



그림 52. 샤를로텐부르크 궁의 바로크 정원



그림 53. 프리드리히스펠데 공원에서 열린 바로크축제

- **풍경정원:**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출발된 정원양식으로 19세기 독일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베를린에 영국풍의 풍경양식을 본따 조성된 정원이 다수 존재한다.



그림 54. 비스도르프 궁의 풍경정원



그림 55. 글리니케 궁전의 풍경정원

- **시민공원 (1900~1918 / 1919~1945에 다수 조성):**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도시가 밀집되고 생활환경이 조악해지자 20세기 초부터 많은 시민공원들이 조성되었다. 베를린

의 공원 중 시민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림 56. 동구의 트레포우 시민공원



그림 57. 북구의 레베르크 시민공원

- **전후에 조성된 모던한 공원 (1945~1989):** 2차 대전 후에는 폐허의 돌더미, 매립지 녹화의 개념으로 조성된 공원들이 많았다.



그림 58. 전후 폐허돌더미 위에 조성된 인솔라너 시민공원 내의 야외수영장

- **통일 이후에 조성된 공원 (1990~):** 1990년 동서 통일과 함께 조성된 공원들은 모두 독특한 배경들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것이 많다. 그 중 쉐네베르거 자연공원, 포츠다머 광장 변의 공원들, 글라이스드라이엑 공원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자연침해조절 방안의 결과로 탄생한 공원들은 21세기의 새로운 공원 유형으로 인식된다. [\[2015년 자료 중 베를린 녹지구조 참조\]](#)

■ 묘지공원

묘지공원 역시 조성 시기와 변천사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공원형 묘지:** 오래된, 전통적인 묘원으로서 풍경정원의 정취가 느껴진다. 다만 공간조성과 동선이 엄격한 기하학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베를린에 여러 개소 존재하며 오래된 큰 나무들이 다수 보유되어 있다.



그림 59. 작곡가 멘델스존이 잠들어 있는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의 공원형 묘원



그림 60. 성 마티아스 교회에서 운영하는 묘원. 전형적인 공원형

- **삼림묘원:** 1900년대부터 숲 속에 묘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기존 수목을 대부분 유지하고 나무들 사이에 묘를 배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수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림 61. 베를린 남서쪽 그루네발트 숲 속에 위치한 삼림묘원

- 관리가 용이한 **모던한 묘원:** 합리적 관리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므로 식물상의 다양성 보다는 침엽수와 상록수 위주로 식재하여 단조로우며 전통적인 묘원 문화와 격차가 심하다.

■ 주말정원지

1945년 2차대전 이후 주말정원은 휴양뿐 아니라 시민들의 식량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그에 따라 유실수와 채소밭이 외관을 지배하게 되었다. 서베를린의 경우 점차 화훼와 꽃나무

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텃밭보다는 장식정원의 개념으로 변화해 갔다.

21세기에 들어 와 생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깨끗한 먹거리, 건강한 삶을 위해 다시 채소와 과일을 가꾸는 것을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주말정원들은 단지형으로 집중되어 도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편이 아니므로 크게 인지되지는 않지만 단지의 조성연도와 성격에 따라 그 모습에 격차가 있다.

■ 간섭지와 유희지

고속도로, 공항 등의 교통 용지 주변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폐지된 교통용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제 4연의 자연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생태 뿐 아니라 풍경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공간들의 특징은 기술적 시설의 잔재, 토지이용의 흔적 위에 간섭지 내지는 폐허식생이 자연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도시시설은 독특한 식생으로 주변의 건축지 혹은 녹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에 속하는 것은 병원의 외부공간녹지나 정원, 대학 캠퍼스, 베를린 수자원공사 부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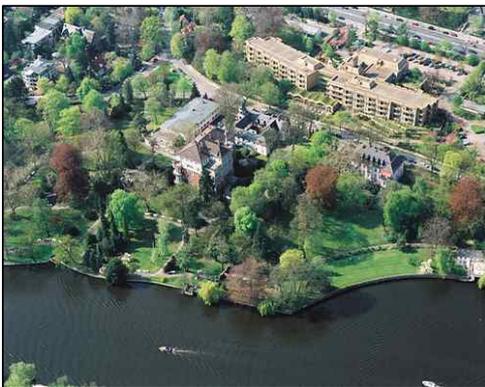


그림 62. 녹지에 둘러싸인 베를린의 종합병원



그림 63. 베를린 수자원공사 부지

■ 점형 혹은 선형녹지

베를린에 간헐적으로 남아 있는 옛 마을의 잔재들을 보면 대개 전통마을의 핵심을 이루던 장소들이다. 북쪽의 뤼바르스 구나 블랑켄펠트 구는 그 중에서도 옛 마을구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있다. 특히 대로가 지나가면서 희생이 적지 않았다. 이때 점형 혹은 선형 마을 녹지의 흔적은 해당 마을의 구조에 좌우된다.

독일의 전통마을은 농가들의 배치 방식에 따라 1) 양거 마을과 2) 선형마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양거마을 Angerdorf:

마을 중심에 렌즈 모양, 혹은 사각형의 공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농가들이 둘러싼 형태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이 공터를 양거Anger라고 한다. 대개는 이곳에 연못이나 저수지가 있고 정자나무가 서 있는 초지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가축을 공동으로 먹이던 곳이

고 축제, 재판 등의 마을행사가 열리던 곳이기도 했으며 공동 오븐을 세워 빵을 굽기도 했던 멀티기능공간이었다. 후에 교회와 마을회관 등이 들어섰다.



블랑켄부르크 가. 중심부에 공동 초지가 있고 마을 교회가 서 있는 옛 양거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다. © SenStadtUm

▪ **선형마을** linear settlement: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가옥들이 나란히 배치된 타입이다. 양거마을에 비해 늦게 시작된 유형으로서 반드시 농촌이라는 전제는 없다. 예를 들어 인근 공장에 속한 근로자 마을이거나 아직 도시가 되기 전의 취락지일 수도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가옥이 들어 선 선형마을. 중심부가 없고 교회나 공동체 건물도 도로변에 면해 있다. © Lotze

두 유형의 마을에서 유래한 구조적 특징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좁은 자연석 포장도로 / 비포장 보행로
- 가옥 앞의 정원과 철재 울타리 널빤지 울타리
- 텃밭과 과일나무
- 마을 중심부의 빈터나 유수지
- 마을 교회와 교회묘지
- 장원
- 고목

- 마을 외곽에 들판과 목초지

■ 도시의 대소광장 Stadtplätze

본시 도시 광장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넓혀 보행자들의 동선을 편하게 하도록 만든 공간을 말한다. 주어진 상황이나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와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다. 공간이 허락하는 경우 화단 등을 조성하거나 휴게공간을 마련한 곳도 있으나 출퇴근 시간 수많은 인파들이 서로 부대끼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순수한 이동공간의 개념으로 조성된 곳도 적지 않다.

또한 광장의 주변에는 흔히 상점이나 카페, 레스토랑 등이 존재하므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와는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광장이 내포하고 있는 “넓은 곳”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나 달리 적합한 개념이 발견되지 않았다.

광장의 퀄리티는 얼마나 공간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한편 도로교통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 베를린 광장의 이모저모



그림 66. 브란덴부르크 문 앞의 파리광장



그림 67. 공원을 연상케 하는 마리 광장



그림 68.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사비니 광장



그림 69. 도심 속의 오아시스 레닌 광장

■ 기타 선형구조

철로변 경사면은 자연스러운 식생구조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하이라인 같은 특이한 구조로 도시 풍경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가로수길은 매우 중요한 선형구조를 이루며 그 외에 인위적으로 쌓은 지형이나 곡 역시 방향성에 도움을 주고 도시외관을 다듬는데 일조할 수 있다.

용수로와 연못, 우수지 등은 문화경관 특유의 풍경요소이다. 경작지 뿐 아니라 주거단지 내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소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1.3. 주거지의 오픈스페이스 구조

각 주거지의 건축양식과 배치에 따라 외부공간의 구조 역시 결정된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도시 성장의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건축양식이 새로 개발되었다. 베를린은 다른 유럽도시에 비해 비교적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중세와 르네상스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바로크 시대의 영향이 아주 근소하게 남아있다.

베를린의 도시구조가 확립된 시기를 1860년에서 1920년까지로 잡고 있다.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외곽으로 팽창해 나가기는 했지만 1910년에 수립된 안선의 그린벨트와 그린네트웍 계획이 건설 차단선의 역할을 하여 외곽지대로의 도시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베를린의 각 구역에서 도시건설과 건축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베를린의 특징이다. 각 도시구조 및 건축양식에 따라 형성된 녹지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그린더차이트 건축의 중정 (뒷마당, Hof)



그림 70. 그린더차이트 블록경계형 주거지의 폐쇄적 중정

소위 말하는 『그린더차이트 (산업혁명기 혹은 건설 부흥기)』, 즉 1870~1918년 사이에 도심에 건설된 아파트는 4-6층 규모의 블록경계형이었다.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록을 모두 건물로 둘러싸은 양식으로 이로 인해 블록 내부에 마당Hof이 형성되었다. 현재 순환전철 링 내외에 밀집되어 있다. 베를린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주거타입이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가 조금씩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밀도가 가장 높은 건축양식이며 최대 건폐율 0.7, 최대 용적률 3.2로 제한되어 있다.

▪ 이런 중정은 다시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 폐쇄형: 사방으로 건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부분적으로 공공업용으로 이용되는 유형. (수공업 작업장, 상업용 물류 적치장 등). 이 경우 거의 백퍼센트 포장되어 있다. 건물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이동공간 역할과 더불어 쓰레기통 하치장,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 반개방형: 부분적으로 비포장지가 있어 오래된 나무가 심겨있기도 하며 자연석 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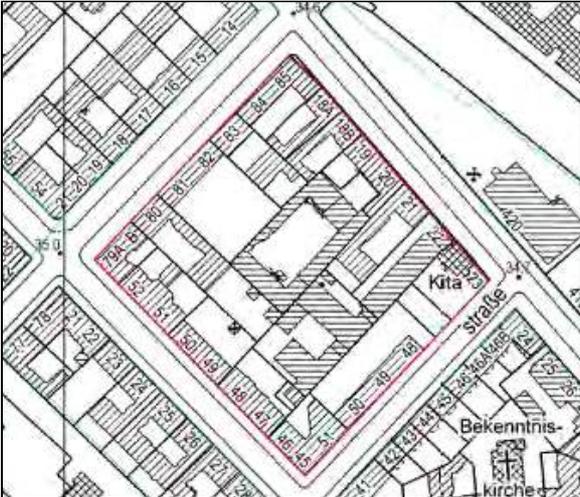


그림 71. 고밀도의 블록형 주거지. 도면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음.

로나 화단이 조성된 곳도 있다. 부분적으로 열려있어 울타리 등으로 옆 건물과 경계를 지은 곳도 있어 균일하지 않고 복잡한 중정 연계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중에는 부분적으로 울타리나 담장을 허물고 커다란 하나의 공간을 얻어 어린이집 등, 주민 센터 등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그림 72. 전쟁 직후 1952년 노동자 동네 블록 마당. © Bundesarchiv



그림 73. 본시 소공업 건축지 블록 내부의 마당이었던 것을 개조한 곳으로 지금은 관광명소 © 고택희

■ 도시복구 및 재생구역

2차 대전 때 베를린 건축의 약 30%가 파괴되었다. 그 중 대부분은 그린더차이트에 건설된 건물이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복구 내지는 재생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파괴되기 전의 상태, 즉 그린더차이트 시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전후의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전후의 건축개념은 “빛, 맑은 공기, 건강과 위생”을 키워드로 삼았으며 밀집되고 폐쇄적인 블록형 건축을 거부했다. 이때 한국의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건축들이 들어섰다.

파괴된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부 파괴된 단일건축을 개축하는 경우가 있었고 구역이나 블록 전체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재생사업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구구간:

- 전후의 복구사업으로 인해 전통적인 뒷마당이 사라지고 그 대신 주로 잔디밭으로 이루어



그림 74. 1945년. 이차대전 종전 이후 파괴된 구역을 복구하며 다양한 건축양식이 섞인 곳

진 녹지가 들어섰다.

- 전쟁 때 파괴되지 않은 구간에는 오래 된 가로수나 마당의 나무 들이 보존되어 있다.
- 넓은 자동차도로와 단조로운 건물입면, 단순하게 조성된 좁은 도로변 녹지 등이 이 구역의 도시풍경을 지배한다.
- 덜 파괴된 구역에는 부분적으로 빈자리를 채워 넣었으나 건축선을 맞추지 않아 거리공간의 일사분란한 방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이 있다.
- 산책대로, 큰 가로수길 전통적 도시 광장 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재생구역:

재생된 구역들은 통일된 건축양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60년대 모두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의 재생사업과 1980년대에 시작된 옛 건축소재와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하는 방법 등의 흔적을 모두 읽을 수 있다.

장식형 도시정원과 블록 정원마당

순환전철로 외곽에 존재한다. 역시 그윈더차이트에 건설된 블록형이며 중정이 단정하고 장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밀도형 도심 블록건축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역도 있다. 한편 농촌마을의 핵심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베를린의 각 구를 답사하여 관찰하면 구역별로 조금씩 다른 역사적 흔적들이 보이고 이런 흔적들이 각 구역의 고유한 성격과

매력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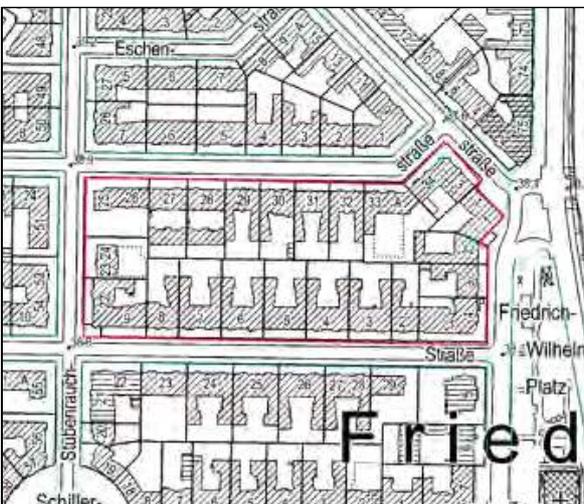


그림 75.

- 노동자 층 주택, 소공업지대 등에 소위 말하는 “고양이 머릿돌 포장석Kopfsteinpflaster”이 많이 남아 있으며 주택 앞에 일률적으로 디자인된 소박한 정원
- 소광장들과 포장된 장터
- 부유층이 사는 곳에는 건물 입면이 화려하고 건물 앞 정원 역시 화려하며 장식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라일락 목련 등 꽃피는 나무들이 풍경을 지배한다.



그림 76. “고양이머리 포장석” 옛날 마차 통행을 위해 조성했었다. © Christian Lohse



그림 77. 각 동네마다 광장 등에 주말장이 서는 곳이 있다. © 고정희



그림 78. 교양시민층이 주로 사는 동네의 블록형 주택 앞마당. © 고정희



그림 79. 교양시민층이 사는 동네의 블록 내부 중정의 장식정원. © 고정희

■ 1920년대, 1930년대 건설된 띠형 주거단지의 녹지

1919년부터 1945 사이에 부도심 들을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들어섰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주거지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

- 블록형 건축양식으로 내부에 부속건물을 두지 않고 녹색 중정을 넓게 잡은 유형
- 모더니즘 시대에 조성된 선형 건축으로 넓은 녹지에 랜덤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현재 모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두 건축양식이 서로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우선 1) 같은 시기에 건설되었으며, 2) 외부공간에 대한 컨셉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거지의 특징은

- 가까운 곳에 시민공원과 넓은 주말정원지대가 위치하고 있다. (신도시 설계할 때 공원과 주말정원을 함께 설계했음.)

- 현재 이 구역의 식생들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 기하학적인 공간구조, 전정한 생단, 프렐리스와 장식벽 등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공간을 나누고 정의한다는 점이다.
- 이태리 포플러가 가장 지배적인 수종이다.
- 선형 아파트의 경우 도로와 수직을 이루며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광장, 트렐리스 장식벽, 생단, 수목열 등을 통해 외부공간을 다양하게 디자인했다.
- 건물 전면의 앞마당은 각 주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면한 공공용지이며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공간에 집중력을 주고 있다.
- 도로 중앙에 가로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 광장들은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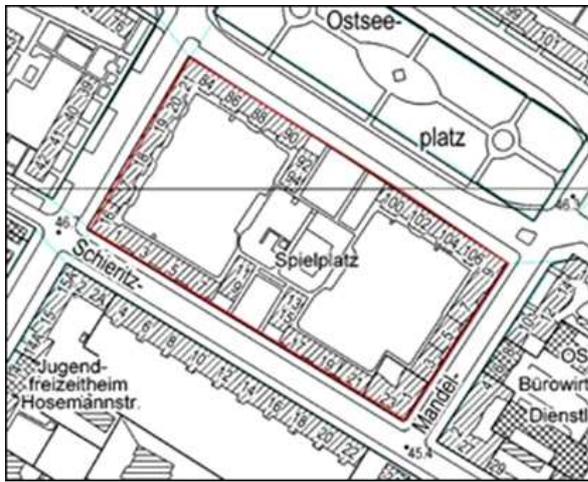


그림 80. 1920-1930년대 건설된 블록경계형. 중앙의 넓은 녹지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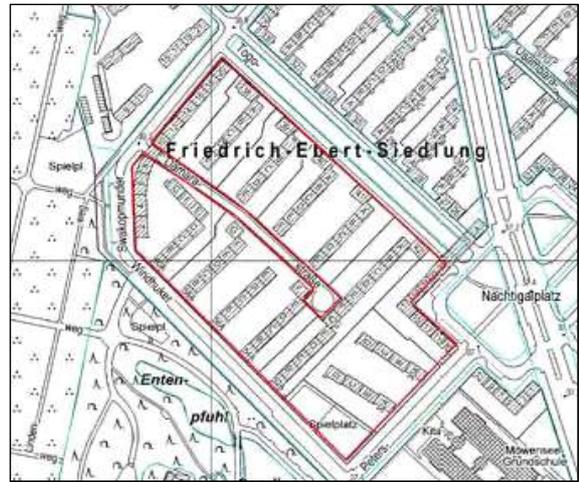


그림 81. 모더니즘 양식으로 건설한 선형 건축. 넓은 녹지에 랜덤하게 배치.



그림 82. 넓은 중정을 가진 블록경계형. 반개방된 구조. 1920-30년대 건설.



그림 83. 1929-1931년에 건설된 선형 주택. 넓은 녹지와 자유로운 느낌이 특징. © berlinersiedlungen

■ 1950년대 이후의 주거단지의 풍경식 내지는 기하학적 녹지

이 유형은 거의 변두리에서만 나타난다. 예외는 티어가 르텐 중앙공원 서쪽에 인접한 한자아파트 단지와 동베를린 도심의 칼 마르크스 아파트 단지 뿐이다. 이 시기에 건설된 주거단지들은 선형 및 타워형의 고층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넓은 공원에 건물을 배치해 놓은 듯 녹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57년 한자아파트에서 세계 건축박람회가 열린 뒤 새로운 시대를 열 주거건축의 신개념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선호도가 추락한 뒤 이런 유형의 고층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고 있다.

이 유형의 주거지 외부공간은 풍경식으로 조성되어 마치 전원도시인 듯 착각이 들게 한다. 그림에도 주차장 등 포장면적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동베를린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풍경식 녹지와 부조화감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 폭이 지나치게 넓고 녹지디자인이 도식적이고 단조로우며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형아파트 단지의 결점은 건축양식이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관요소가 부여되지 않으면 얼굴 없는 주거지로 도시 미학적 결손요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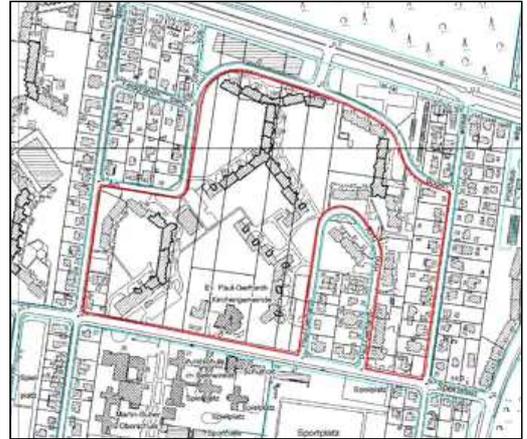


그림 84. 1960년대 이후에 건설된 대형아파트단지



동베를린의 대형아파트 단지. 넓지만 단조롭고 도식적 녹지구조가 특징

정원도시

19세기말에 건설된 빌라단지¹⁹⁾와 1920년대에 건설된 정원도시들이 이에 속한다.

■ 빌라단지

1865년경부터 커다란 정원이 있는 전원풍의 빌라단지들이 변두리에 많이 들어섰다. 서쪽의 반제 호숫가, 동쪽의 다메강변에 고급 전원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기 시작했으며 숲이나 들을 배경으로 조성되었으므로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이다. 숲가에 조성되었는가 아니면 들에 조성되었는가에 따라 숲 속 빌라단지와 파크형 빌라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골의 장원과는 달리 도로를 중심으로 건축선을 지켜 건설되었으므로 정돈된 느낌을 주며 건물 전면에 잘 가꾸어진 앞뜰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넓은 정원은 건물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교차로마다 고급 장식광장들이 배치되어 있어 방향성, 인지성을 높이고 고유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지

빌라보다는 작은 규모의 주택지이다. 그중 1945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빌라단지와 마찬가지로 오래 된 가로수가 줄지어 있어 주택단지에 틀을 형성하며 공간감과 방향성을 주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정원에 유용식물과 유실수를 즐겨 심었으나 그 이후 화훼식물들이 점차 풍경을 지배해 갔다. 다만 화훼 식재법이 도식적으로 굳어져가고 유실수 비율이 감소하면서 풍경이 오히려 단조로워지고 있다.

2.2. 주요한 발전목표와 개선방안

도시풍경은 단순히 장식적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 삶의 질에 결정적 책임을 지고 있다. 도시풍경의 다양성, 인지성, 방향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도시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각 구역의 풍경은 단지 외관에 그치지 않으며 그 보다는 각 장소가 가지고 있는 혼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장소의 고유성은 주어진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및 주거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이런 환경조건들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변화하며 한 장소의 모습을 깊이 각인시킨다. 그러므로 한 장소의 역사는 오늘 그 장소의 외관을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각 장소별 풍경발전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도시구조적 맥락, 주거지의 역사와 주어진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어 진다. 이런 기준 하에 도시풍경의 발전을 위한 목표는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

■ 도시구조를 책임지는 강한 인지요소들은 방향성을 주고 공간적 맥락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

19) 여기서 빌라는 한국의 고급 다세대 주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전원주택 개념이다.

므로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선형구조는 자연공간과 도시경관을 정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천, 철길 및 장벽의 자취를 따라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오래된 도로들 역시 오래된 가로수로 인해 공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 광장, 계류들과 각종 녹지들 역시 도시풍경 속에서 방향성을 주는 요소들이다. 중요한 조망권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 각 주거지에 배어있는 자연 공간적 특성들이 확실히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주거지에는 자연적 요소들이 지형이나 식물상에 흔적을 남긴다. 자연공간의 흔적이 뚜렷한 곳이나 오픈스페이스에 건축하거나 지형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연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도시 속에 남아있는 습지나 늪지 등 자연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면적에는 자연적이고 보기드문 토양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역에 새로 식재할 경우 자연적 특성에 부합되는 수종을 선정해야 한다.

■ 베를린 특유의 경관형태들과 본래 다양했던 모습들은 보존되거나 아니면 복원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연계경관들, 특히 브란덴부르크 주까지 연계되는 경관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경관에는 토지이용의 역사와 거주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역사를 눈에 보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역사적 구조를 늘 볼 수 있어야 한다. 도시외곽의 거대한 삼림과 농촌문화경관에서 도시 거주지에 남아있는 자연의 흔적에서 정치가 거주역사 및 자연적 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성장해 온 도시구조와 중심가들, 시민정원, 주말정원, 묘원으로 구성된 녹지링, 1920-1930년대 조성된 주거지, 농촌마을의 흔적과 풍경식 외부공간들은 보존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평준화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 건축, 녹지를 신규로 건설하거나 조성할 때는 기존의 현황을 살펴서 그에 조화시켜야 한다.

■ 도시구역이나 근린주구들이 개별적 퀄리티 들은 주변의 녹지와 경관요소들에 반영된다. 이들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복원해야 한다.

될수록 각 구역별로 특유의 식물을 보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구역의 환경에 맞지 않거나 고유하지 않은 식물은 배제해야 한다. 오픈스페이스를 디자인할 시에는 각 주거지 형성의 역사에서 특징적인 것과의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할 시에는 오픈스페이스에 특별히 비중을 두어야 한다. 요즘처럼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일수록 수목, 가로수 등의 지속적인 경관구조 들은 불변성을 전달하며 주민들에게 고향의 느낌을 전달한다.

■ 자연에 가까운 구조들은 번두리나 도시외곽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 내에서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유희지, 나지 등에 건축이 들어서는 경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간접지 식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디자인에 수렴되어야 한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공간들은 시민들

이 스스로 용도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히 도시비오톱과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예: 구 공항부지 템펠호퍼 펠트 등)

2.3. 각 풍경구역별 발전목표와 개선방안

환경생태계획의 풍경편에서는 도시전체를 같은 유형끼리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발전목표를 설정했다. 구간을 나눔으로써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자연 공간, 거주지 및 경관의 역사적 맥락이 분명해진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오픈스페이스와 거주지 구역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도출되며 이는 곧 각 구역의 발전목표와 구현방안으로 연결된다. 이때 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현 오픈스페이스 구조와 무엇보다도 각 구역 고유의 오픈스페이스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
- 도시구조의 변천사, 특히 1920년을 전후로 한 블록구조의 해체, 빌라단지, 1920-1930년대 건축지, 1960년대 이후에 건설된 대형아파트단지
- 자연공간 경계, 지형적 근거
- 거주지 내의 외부공간을 지배하는 유실수, 삼림수, 고목 등과 같은 수목식생유형.

위의 기준들은 이미 지난 1986에 수립되고 1994년에 갱신된 환경생태계획에서 이미 개발되었다. 비오톱유형도와 비교해 보면 거주지의 형성과정과 비오톱 유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즉 풍경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구역분류와 비오톱 발전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분류된 구역들이 일치한다. [\[부록 : 비오톱지도와 풍경지도와의 비교 참조\]](#)

2.3.1. 도시적 성격의 공간의 풍경 발전목표 및 구현방안

해당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에서의 색상과
분포상황

각 구역별 현황과 발전목표 요약



도심

- 현황/ 특성 :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도시구조 확립됨.

- 건축적 특성:



그림 88. 유사한 유형의 도시 내 분포 상황

- 전철순환링 내부에 주로 존재하는 19세기 “그린더차이트”에 건설된 블록경계형 건축이 지배적이다.
- 구 베를린을 이루었던 구역들
- 현재 대부분 도심 재생사업구간에 속한다.

■ 오픈스페이스 특성:

- 장식정원
- 장터
- 산책대로
- 건물 전면과 도로 사이에 앞뜰 (Vorgarten)
- 피나무 가로수길
- 바로크 및 그린더차이트에 조성된 공원과 묘지공원

■ 자연공간적 특성:

- 우르슈트롬탈을 흐르는 슈프레강과 란트베어 운하 및 18세기 19세기에 건설된 대로들이 맥을 이룸.
- 지하수위가 매우 높음
- 토양층: 모래, 이탄토, 침전토
- 우르슈트롬탈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샤를로텐부르크 공원 및 티어가르텐 중앙공원에 이런 토양층에서 서식하는 특유의 식생 잔재
- 남북으로 구릉지가 시작되며 지형이 상승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음. (빅토리아 파크, 프렌츠라우어베르크 가, 메링담 가 등)

■ **발전 목표 [도면 범례에 요약되어 있음]**

■ 토지 및 건축이용 분야의 발전 목표:

- 19세기, 20세기 초에 확립된 도시구조 유지. 신축 시에 블록경계형 기본 구조 및 처마선 높이 준수

■ **도시풍경 발전 목표: 구역 특징적 도시풍경 보전 및 재생**

- 변화 있는 가로공간, 도시광장, 산책대로의 모습 보존 개선
- 슈프레 강변 가능한 한 전 구간 녹색 산책대로 완성
- 전 구간의 녹지율을 높이되 피나무 등 구역 특유의 수목 적용
- 구릉지 경사면 인지 가능하도록 디자인 요소를 통해 강조
- 건물 뒤편의 마당이 가지고 있는 녹지 잠재력을 십분 활용: 포장면적 철거, 담, 벽, 지붕, 옥상 녹화
- 그밖에 모든 오픈스페이스의 녹지잠재력을 활용하여 주거

환경개선

- 도시 밀도를 높일 경우 오픈스페이스의 수준 최대한 상승시켜 이를 보완
- 핵심 발전방안:
 - 도시광장에 수관폭이 넓은 나무 심기
 - 도시정원 내의 화단과 분수 정비 내지는 신규 조성
 - 녹지띠와 슈프레 강변 산책대로의 빈 곳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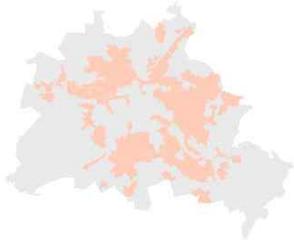
중앙 녹지 (티어가르텐과 주변의 녹지연계지)

■ 현황:

- 이 구간의 핵심은 베를린의 중앙공원 티어가르텐. 풍경식으로 조성된 티어가르텐은 본래 왕의 수렵원이었음.
- 공원 주변에 보존가치가 있는 녹지 및 건물, 대사관지구, 정부청사지구와 의회의 외부공간 분포
- 이 구역은 녹지가 지배적일 뿐 아니라 전 도시차원의 큰 행사를 자주 치르는 곳. (월드컵 응원, 각종 문화축제, 베를린 마라톤 등)

■ 발전목표

- 식물이 지배하는 전체 공간적 성격 유지
- 의회, 정부청사의 특별한 이용행태, 시민들의 대형 행사 등이 구역의 특별한 이용유형 존중
- 녹지컨셉 개발 시에 장소의 역사성을 심분 감안하고 잔존하는 간섭지 식생의 상징적 의미 살려야 함. 도시건설의 역사를 감안하여 그 특성을 살리기



도심과 외곽의 전이구역

■ 현황

- 도시구조적, 건축적 특성:

왼쪽 배치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도심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구역들을 말한다. 이 구역들은 20세기 초까지 베를린 성 밖에 있던 농촌마을들이었다. 베를린에 편입된 후 (편입된 시기 여러 도시 건설 시기를 거치면서 통일된 균일한 건축구조 보다는 건축양식의 다양성을 보인다.

- 19세기에 마을 중심가의 밀도 높임 (도시화 과정)

- 슈프레 강과 철도노선을 따라 산업지구 들어섰으나 현재 모두 폐지되었으며 이차대전 이후 재생사업으로 주거지 건설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나지로 남아있는 곳도 있음.
- 1920-1930 사이에 건설된 선형아파트
- 1920-1940 사이에 건설된 블록경계형 건축 + 대형 중정
- 그 사이사이에 2차대전 이후 건설된 1950-60년대 주거지 존재.
- 좀 더 외곽으로 대형아파트단지 들어섬.
- 방사선형 도로와 철도 및 고속도로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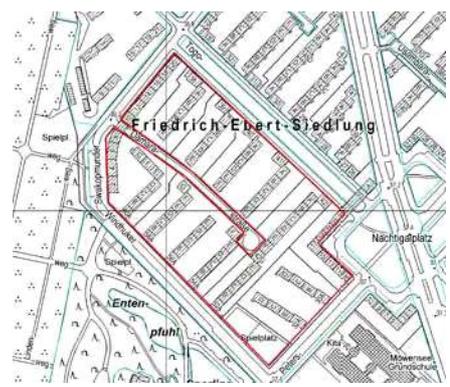
■ 오픈스페이스 구조:

- 슈프레강, 불레천, 팡케천과 여러 운하가 흐름
- 1920년대에 조성된 시민공원이 배치되어 있다.
- 19세기와 20세기 초, 당시 성문 밖이었던 이 구역에 설립했던 주말정원단지와 묘지공원. 현재 도심에 감싸고 있는 녹지링 형성.
- 대형중정의 녹지와 선형아파트 외부공간

**1920-1940 사이에 건설된
블록경계형 건축 + 대형 중정**



**1920-1930 사이에 건설된
선형아파트**





■ 발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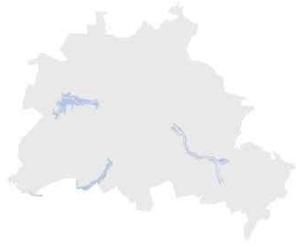
- 도시풍경 중 전형적인 성격을 보이는 구역과 특별한 녹지나 경관구조들은 보존하고 향상시킴
- 구역 특유의 디자인요소 및 주거지 + 오픈스페이스의 연계구조 감안 (시민공원, 도시정원, 1920년대, 1930년대에 설립된 주거단지 등)
- 공간을 만드는 요소들을 향상시키고 대형 주거단지에 주제 수목을 설정하여 근린주구 (Neighbourhood) 형성
- 시민공원, 주말정원지대와 묘지공원은 도시구조의 요소로서 보존하고 공원녹지를 신설하여 보완함.
- 공사업구역과 시설지의 녹지비율을 높임 (지붕, 옥상, 벽면 녹화, 민감한 시설 주변에 시선차단식재)
- 풍경을 훼손하는 장애물 제거
- 경관적 랜드마크 요소 (시설물이 아닌) 보존 및 개선 / 신도시 내지는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시에는 근린주구 형성에 도움이 되는 녹지, 가로녹지 및 녹색도시광장 등의 요소 설치



인위적으로 변형된 하천변 저지대

■ 현황 / 특징

- 베를린의 하천과 호소시스템 중 왼쪽 지도에 표시된 일부 구간 만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 이 구간은 산업지와 주거지를 건설하기 위해 흙을 쌓고 슈프레 강을 정비하고 텔투운하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바꾸는



등 인위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 본래 숲 속을 흐르는 강, 용수로와 호수 등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이었으나 지금은 일부 공사업지의 외부공간과 주말정원단지에 일부 그 모습이 남아 있을 뿐이다.
-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의 정원이나 기타 공원에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

■ 발전 목표

- 자연생태적 경관적 맥락 감안
- 저지대와 천변 경사면의 자연적 식생구조 보존
- 천변 녹지 조성
- 하천 호소에 대한 조망성 향상
- 핵심과제: 공사업지로 쓰이는 슈프레 강변의 모습을 복원하거나 녹화하고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1.1. 주거지



유실수 주택지



■ 현황 / 특징

- 1920년대 이후에 번두리 농경지에 건설된 단독주택지, 정원도시 및 주말정원단지 등이 이에 속함.
- 들, 초지, 방목지 등의 잔재가 흩어져 있으며 오래 된 유실수들이 남아 있으며
- 시골 가로수길, 고양이며리포석, 도로변의 비포장된 면적
- 아직 곳곳에 자연 습지, 연못, 용수로와 계류 등 존재
- 이 구역에 자리 잡은 산업지나 공장 등의 외부공간에도 이런 특징이 남아있는 곳이 있음.

■ 발전 목표

- 유실수 초지의 비율 증가.
- 문화경관적 요소 (자연형 생울타리, 계류, 용수로, 배수로, 연못, 호수, 습초지, 가로수길, 도로변 비포장 면적 등) 보존,

관리, 복원

- 저수지, 농가정원, 장원, 교회묘지 등 전형적인 농촌적 요소들 보존, 발전
- 전통 가로수길 복원
- 중요한 가로수, 비포장길 등의 요소 보존, 발전
- 주택지 확장 시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 충분히 마련하여 기존의 경관구조에 수렴. 지역특유의 녹지구조 향상
- 정원에 전통적 유용식물과 원예식물 및 유실수 보완하고 보존
- 전원경관과의 전이공간의 높은 녹지율 보존
- 핵심과제: 전형적인 경관요소들을 복원하고 자연에 가깝게 관리. 아직 일부 지상에 남아 있는 전신주와 전깃줄 지하에 묻기



파크형 수목이 지배적인 주택지 (주변에 오래된 공원이 존재하거나 고목들이 많은 지역)



■ 현황, 특성

- 왼쪽 분포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서쪽 첼렌도르프구의 오래된 빌라지대와 단독주택지 및 서쪽 베스트엔드구 주거지의 일부만이 이에 해당.
- 오래된 큰 정원들과 수관이 크고 오래된 대형목들이 풍경을 지배함
- 도로망의 구조가 아름답고 많은 장식광장들이 존재함

■ 발전 목표

- 정원,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공간에 존재하는 수관이 큰 독립수형 대형목을 보존하고 보완
- 구별로 수립하는 환경생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원이나 가로녹지에 심기 적당한 식물목록 제시
- 저지대에 지어진 공원들:
 - 자연경관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조.
 - 이때 습기를 선호하는 식물 식재.
 - 계류나 연못 자연형으로 복원

20) 먹이숲 Hutewald, Wood pasture: 전통적으로 숲 속에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풀어 풀이나 도토리, 버섯 등을 찾아서 먹게하던 곳을 말함. 숲으로 뒤덮여 있던 유럽에서 상당히 널리 분포되었던 축산 방식. 현대에 들어와 거



숲 속의 주택지

■ 현황 / 특성

- 서쪽과 동쪽 변두리 숲과 호수, 강이 지배하는 녹지에 조성된 빌라단지 혹은 1920-193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단지
- 기존 숲 속에 혹은 숲을 배경으로 건설했으므로 숲 속 동네 같은 느낌.
- 정원이나 단지 외부공간에도 소나무, 참나무 등 삼림수가 지배적
- 숲 공원, 숲 묘원 등이 존재하며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풍경
- 공원 내에 천변 숲 특유의 자연경관 요소, 즉 모래사구 등이 남아있는 곳이 있음.



■ 발전 목표

- 별장지대, 1920년대 및 1930년대 설립된 주거단지 등 독특한 맥락의 근린주구 및 고유의 성격 보존 및 발전
- 정원과 주거지 내에 존재하는 오래 된 수목 보존 보완
- 숲속 공원, 숲속 초지 및 건조초지 등의 특유의 구성요소들을 보존, 보완
- 주택지와 공원녹지가 접하는 곳에 자연적인 관목군락, 숲속 초지, 척박초지, 계류 등의 보존, 개발
- 숲으로의 전이공간에 존재하는 높은 녹지비율 유지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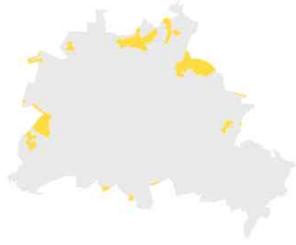
1.1.2. 비건축지 경관



경작문화경관이 지배적인 곳

■ 현황 / 특성

- 서남쪽 변두리와 북쪽 변두리에 경작지로 이루어진 문화경관
- 시 경계를 넘어 브란덴부르크 주로 연결되므로 더욱 의미를 가짐



■ 발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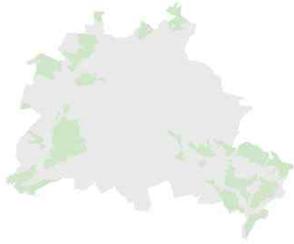
- 전형적인 경관요소, 즉 자연생단, 수목군락, 용수로, 계류, 비포장길, 가로수길 등 보존, 개선
- 마을+밭으로 이루어진 농촌의 구조 및 마을 저수지, 고목나무, 농가정원 및 목초지 등의 전형적 농촌 요소 들 보존 혹은 복원
- 근교 휴양지 개발할 경우 문화경관 적 특성과 특유의 구성요소들을 감안
- 근교 휴양지에 소규모적 전통 농경지 구조 수렴 / 풍경에 변화와 다양성 유도 / 저지대에 목초지이용 등
- 경작지 이용시 아래와 같은 원칙 준수:
 - 경작지 규모 제한 (소규모의 짜깁기 경작지들이 다양성을 보장하므로), 농기계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이용
 - 들판 구조를 정의하는 밭두렁 관목, 수목군락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유용식물 재배하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춤
 - 저지대는 목초지로 이용
 - 방목 가축수 제한
 - 휴양이용을 위해 편안한 산책길 조성
 - 농약 살포 배제, 밭두렁의 자연발생식물 보호. 비료 최소화
 - 인위적 관수, 배수 배제하고 자연에 맡김. 관수 배수를 위해 땅을 고르고 물길을 파는 등 자연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 핵심 과제:
 - 이 구역 특유의 전원풍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공간 간의 연계성 마련. 고유의 경관 요소 복원
 - 공원 조성
 - 풍경 장애요소 제거



삼림 경관이 지배적인 곳

■ 현황 / 특성

- 숲이 많은 베를린에서 큰 비율을 차지. 특히 서쪽과 동남쪽 변두리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
- 북쪽 바르님에는 구 하수관개용 들판에 넓은 면적으로 조림한 것이 있음.



- 자연림: 소나무 + 참나무 혼효림, 소나무 + 너도밤나무 혼효림이 지배적이며 강가 모래언덕에만 소나무 숲.
- 임업림: 소나무의 비율 아직도 큼
- 자연림 전환 시범구역이 조성되어 있음.
- 베를린의 숲은 호수와 하천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천풍경과 숲이 하나의 풍경으로 인지됨.

■ 발전 목표

-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삼림구조 보존 / 오래 된 삼림이나 자연에 가까운 삼림 보존
- 천변 숲의 토양이 건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구현
- 숲 속의 하천이나 호수 등 시민들 접근이 용이하도록 방법 강구. 이때 천변 식생 보호에 유의
- 숲 속의 빈터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조망성 개선
- 전통적 먹이숲²⁰, 척박초지, 황야, 숲속 초지, 들판, 가로수길, 하천, 습지 등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보존, 발전
- 민감한 삼림구역의 환경영향 저감 (승용차 접근 제한 등)
- 이 구역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풍경정원들 보존
- 핵심과제: 임업림과 구 군사시설 및 숲가의 상업시설 - 다양한 구조의 숲 경관에 수렴시켜 휴양림으로 전환



그림 113. 베를린 서쪽 테겔숲 속의 테겔호수와 보르지히 궁전

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건강한 축산업의 일환으로 혹은 관광지로서 먹이숲을 부활시킨 곳도 있다.



그림 114. 오랜 세월동안 먹이숲으로 쓰였던 전통적인
도토리나무숲. 지금은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흥미롭다. ©
Gerhard Elsner



하천/호수 경관

■ 현황 / 특성

- 베를린 서쪽과 동쪽에 각각 강이 넓어지면서 호수로 변한 구역이 이에 해당
- 빙하기에 형성된 크고 작은 호수들. 강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
- 이런 호수 주변의 넓은 저지대에 숲이 형성.
- 서쪽의 반제호수와 동쪽의 뮌겔호수 주변은 거주이용으로 자연성을 많이 상실. 작은 배수용 운하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뮌겔호수 구역의 신 베니스처럼 운하 변에 주말정원지대가 형성된 곳도 있음.
- 한편 아직 저지대 특유의 습한 숲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곳도 있으며
- 천변 모래언덕 특유의 식생이 보존된 곳도 있음
- 호수 속 작은 섬들, 만 등이 이 구역 고유의 풍경
- 서쪽 그루네발트 숲을 흐르는 하펠강변 빙하기에 형성된 언덕위에 오래된 너도밤나무 숲 존재
- 숲으로 둘러싸인 베를린의 호수는 휴양이용을 위해 매우 매력적인 풍경. 여름철 호수에서 수영하는 인파가 몰리고 캠핑장, 수상스포츠 클럽 등이 산재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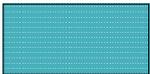




그림 117. 동쪽 뮌헨호수변 숲에 배수를 위해 마련된 운하네트워크. 운하변에 주말정원들이 늘어서 있어 색다른 풍경이 형성된 "뉴베니스". © charter-berlin

■ 발전 목표

- 갈대군락, 천변, 호수변 초지, 저지대 숲 보존, 개발
- 수상스포츠 이용 제한
- 천변, 호수변의 자연 식물상 복원
- 수경관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천변, 호수변 풍경 개선 내지는 풍경을 훼손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공간적으로 집중.
- 조망권역 확보 및 향상
- 이 구역의 매력적인 주거지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발압력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제어
- 핵심 과제:
 - 수변풍경 개선, 제방 등 장애요소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녹색의 수변풍경으로 전환
 - 이 구역 특유의 식물상 완성
 - 갈대밭 보호방안 강구 (자연목책을 둘러 물결로부터 보호)



계류변 저지대

■ 현황 / 특성

- 북쪽에서 도시로 흘러들어가는 세 곳의 계류와 그 주변 풍경이 이에 해당. 테켈천, 팡케천, 불레천 세 개의 천이 각각 처한 주변상황과 토지이용에 의해 서로 다른 성격을 보임.
 - 테켈천변은 다시금 세 개의 지류로 갈라져 흐르는데 작은 늪지, 습지, 용수로, 오리나수 숲 등의 다양한 습지 고유의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다만 상류에서 식수와 관수용 물을 채취하므로 수위가 낮아지거나 절기에 따라 물이 아주 마르는 경우도 있음.





그림 120. 베를린 북쪽에서 시내로 흘러드는 테겔천 주변의 풍경. 중요한 비오톱이며 자연보호구역이며 풍경이 아름다운 매우 중요한 장소. © Florian Möllers

- 팡케천은 도시구간과 공원녹지를 번갈아 흐름. 도시구간에서는 주변에 건축들이 늘어서 있어 자연성 크게 상실



그림 121. 공원 내를 흐르지만 직강화 되어 있는 팡케천. © Richardfabi



그림 122. 도시를 흐르는 팡케천 © Boonekamp

- 불레천 주변은 넓은 들판이 지배적이며 수목군락이 있어 마치 풍경 정원을 연상시킴. 건물철거물을 쌓아 조성한 언덕 세 개 존재. 주변들판을 하수관개용도로 쓰기 위해 19세기 일부 구간을 직강화 함. 2007년 수자원보호계획의 일환으로 불레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우수한 생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직강 구간을 일부 복구함.



그림 123. 블레천. 풍경정원과 같은 분위기 © SenStadtUm

- 계류변 저지대 고유의 풍경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별도로 고찰의 대상이 됨.
- 저지대숲, 목초지, 습초지와 습지 등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다양한 풍경

■ 발전 목표

세 개의 천이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발전 목표 역시 각 성격에 부합되게 설정되어야 함.

- 테겔천:
 - 늪, 습지, 오리나무 숲 등 보존
 -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조치
 - 풍경장애시설 철거하고 계류변에 인위적 시설이 있는 구간을 모두 자연형으로 복구
 - 전통적인 목초지 이용 유지
 -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용 (말 사육장 등) 제한하고 자연공간적 맥락 복원
 - 주말정원 역시 이 지역의 풍경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
- 팡케천:
 - 팡케천의 일부는 녹지와 공원 사이를 흐르며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도시를 흐르는 구간은 거의 직강화 되어 있으며 주변에 건축물들에 의해 좁혀지거나 도로가 지나가는 등 도시 운하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 녹지를 지나가는 구간의 자연스러운 성격 보존. 제방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 저지대에 들어선 주말정원 단지 이전
 - 도시구간에서는 도시천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되 주변 도시풍경에 수렴한다. 도시지역을 흐르는 천이다. 목초지

경관의 전형적이고 다양한 구조 보존, 장려

- 불레천:
 - 주변 경관의 전원적 성격, 즉 목초지, 수목군락, 간섭지 식생, 오리나무 군락 등 보존
 - 계류의 자연화, 충분한 유량 보장
- 팡케천:
 - 도시적 성격과 전원적 성격을 모두 그대로 보유하되 장애물 제거하고 천변 건축행위, 방해가 되는 이용 등 제한
- 핵심 과제:
 - 공간적 맥락 재구성
 - 녹지에 버드나무 오리나무 포플러 등 저지대 특유의 수목 식재하여 저지대임을 분명히 인지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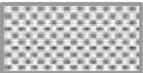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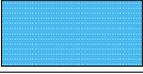
2.4. 풍경 구조적 목표와 구현방안

위의 3.3. 각 풍경구역별 발전목표와 개선방안에서는 구역별 색상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했다. 그 다음 각 풍경단위의 특별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색상위에 빗금을 치거나 별도의 테두리를 두르는 등 별도로 표시하고 점적인 구조들은 심볼을 추가적으로 얹는 방법을 취했다.

2.4.1. 대표적 풍경

대표적 풍경이란 한 구역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를 동심원으로 파악해 볼 때 주말정원지구와 묘원은 한 원과 다음 원 사이의 완충지에서 나타내는 특유의 풍경이다. 같은 구역에 숲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풍경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구역을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볼 수 없다.

베를린 풍경을 대표하는 것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자연경관 혹은 도시구역의 성격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경을 지배하는 녹지 혹은 오픈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호소
	아래의 심볼 들은 추가적으로 각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혹은 풍경의 성격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P</div> 공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K</div> 주말정원지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F</div> 묘지공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S</div> 유희지 </div> </div>	

<p>A 오픈 경관 유휴지</p> <p>O 유실수 초지</p> <p>N 숲 자연화 시범사업지</p> <p>M 늪 (소규모의 습초지, 저지대수목군락 등 포함)</p>	<p>G 목초지, 방목지 유휴지</p> <p>W 삼림</p> <p>H 황야, 건조초지</p> <p>R 갈대밭 (소규모의 습초지, 저지대수목군락 등 포함)</p>
---	---

1.1.3. 도시구역 혹은 주거지의 성격을 특징짓는 구조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버퍼존을 이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을 도시풍경에 수렴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전과 공원 – 박물관 섬 – 모더니즘 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주거지구조 / 주거지연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속하는 것은 도시풍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거주구역들이며 그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발달사의 중요한 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이 뛰어난 도시시설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수자원공사, 공항, 종합병원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구역의 특징은 주변 식물상과 함께 하나의 앙상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구 공항부지 템펠호프 펠트는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활주로, 시그널타워, 항가 등으로 인해 누가 보더라도 공항부지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 본 풍경도에서는 개별적 식물상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테두리를 둘러 각 구역이 가진 전체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디자인양식이 남아 있는 녹지 (공원,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원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이런 공원녹지의 관리는 문화재관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쌓기 Aufschüttungen나 구덩이Ausgrabun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규모로 보아 도시풍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 매립지나 자원채취구덩이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2차 대전의

	<p>결과로 파괴된 벙커, 건물의 잔재들을 모아서 언덕을 만들어 놓은 곳이 베를린에 여러 개 존재하며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들은 보존되어야 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그림 144. 2 차대전 때 파괴된 벙커 © Bundesarchiv 그림 145. 그 위에 녹화해서 형성된 산의 현재모습 © joachim gerhard</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마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은 본래 슈프레 강가에 자리잡았던 두 개의 어촌에서 출발했다. 1920년 모두 65개의 마을을 병합하여 대도시가 되었다. 이 65개 마을의 흔적이 모두 확인된다. – 전통 읍내 구조라거나 고유의 수목군락, 초지 등의 잔재들은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전달하므로 보존되어야 한다.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시적으로 의미 있는 광장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퀄리티를 가진 철도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철도나 철도교량 등 인지가 확실한 철도관련시설들을 표시. 이들은 방해요소라기 보다는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의 경우 우선 동일한 수종을 양쪽에 심어 균일한 느낌을 주고, 충분히 오래되어 양쪽 나무의 수관이 거의 맞닿아 거의 터널을 이루거나 공간감을 확실히 주는 것만 표시했다. – 한쪽에만 가로수를 심은 경우, 아직 너무 어려서 공간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 총 연장 500미터가 넘는 가로수길만 포함시켰다. (주요 도로의 경우 예외적으로 300미터 - 토지이용계획에서 규정한대로) – 도면에 표현된 가로수길들은 현상태를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식재하여야 한다.

2.4.2. 특히 뛰어난 문화경관이나 자연경관 구조

위의 문자 심볼 에 청녹색 혹은 회색의 색채를 입혀 특별한 구조들을 강조했다. 예들 들어 **W** 는 골짜기나 습지에 조성된 삼림을 뜻한다. 이런 방식으로 규모는 작아도 의미가 큰 면적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에 가까운 오픈스페이스에서는 건축지보다 지형적 특징이나 변화상을 유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구간들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도시발전사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높은 가치를 지닌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류, 골짜기, 습지 등에 존재하는 오픈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덕, 구릉, 사구, 종퇴석終堆石 등에 존재하는 오픈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류, 용수로 등

2.4.3. 핵심과제

위에서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해야 한다. 본 환경생태프로그램의 역할은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틀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특히 중요한 과제들이 요구되는 구간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표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면에서 붉은 테두리를 두른 곳은 풍경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보존하고 개선하며 이를 위해 장애 요소 제거해야 할 구역을 말한다.
	붉은 수직선으로 별도로 표시한 곳은 토지이용 유형이 변화할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본래적인 풍경으로 전환해야 할 구역을 말한다.
	붉은 수평선으로 별도로 표시한 곳은 거주지 내의 각 구역특유의 오픈스페이스와 경관요소를 개발해야 할 구간이며 주거환경개선도 요구된다.
	복원 및 유지 발전해야 할 선형의 경관요소
	복원 및 유지 발전해야 하는 도시 광장

부록

1. 풍경 분석 평가 및 발전목표설정 사례

2. 비오톱 · 풍경 · 휴양 부문도 상호 비교

[추후 보완]

3. 함부르크 풍경 · 휴양 부문도

[추후 보완]

부록 I : 풍경의 분석 · 평가 및 목표설정과 핵심과제 도출 방법

문화경관이 지배하는 풍경을 조사한 결과 모두 12개의 구역으로 압축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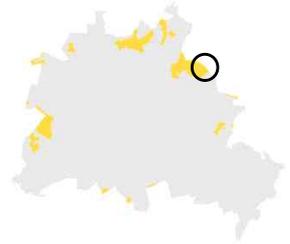
그중 한 구간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 및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종합하여 환경생태프로그램의 부문도 “풍경”편에 수렴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문화경관이 지배적인 공간 사례

1.1. 사례지: 카로우 ~ 팔켄베르거 들판 Karower - Falkenberger Feldflur

카로우-팔켄베르거 들판은 베를린 북동쪽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하수관수용 들판으로 이용되었던 곳이었다. 1968년에 현대적인 하수처리시설이 건설된 이후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조림하여 숲을 조성했다. 1920년대 대도시 베를린으로 편입되었으나 가장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개발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아직 농촌의 면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례지 위치

1.1.1. 풍경 분석과 평가

■ 분석

아래의 자료를 먼저 분석하여 대상지의 성격을 먼저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재확인

- 06.01 건축지의 실제 이용현황도
- 06.02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
- 항공사진
- 현장 조사
- 계획된 건축사업과 공원녹지



분석대상지 항공사진



구 하수관개용 들판의 습지 현재 NATURA 2000 서식지보호구역



현재 일부 면적은 목초지로 이용



아직 남아있는 농촌 요소 (마을 교회)



목초지 봄 식물상 - 마가레트 초원

■ 평가

평가기준	결과 요약
규모, 특징적 공간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들판 (구 하수관개용 들판) ▪ 아직 농촌의 모습이 남아 있으며 실제로 목축업이 행해지고 있는 구역 ▪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북동쪽 경계에 위치하며 경계선을 넘어 브란덴부르크 주로 연결됨. ▪ 베를린 경계 내에서는 그 구조가 많이 훼손된 상태
장애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주택지 / 주말정원지 / 도로 / 고압전선 / 풍력발전기 / 애완동물보호원 / 애완동물묘지



유럽에서 가장 큰 애완동물보호원이 위치하고 있다. © Tierschutzverein Berlin



애완동물 보호원에 속한 애완동물 묘지 © Tierschutzverein Berlin

주거지-들판의 연계성

- 블랑켄부르크와 말효우 사이의 구간은 - 조망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됨.
- 말효우, 바르텐베르크, 팔켄베르크 - 기능적 연계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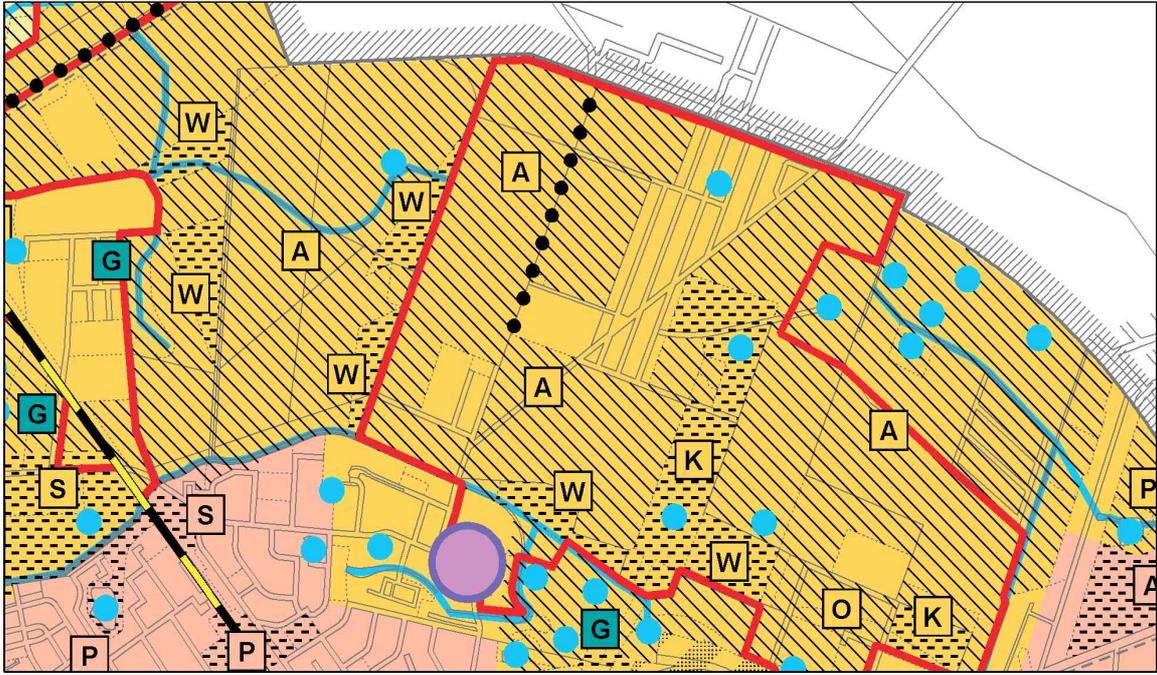
팔켄베르크 남서쪽에 위치한 말효우 Malchow 구에 위치한 말효우 호수. 빙하기에 형성. 말효우 구는 베를린 시에 편입되기 전 농촌마을이었으며 지금도 상당부분 농촌모습 간직

마을 보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로우/말효우: 『선형마을 linear settlement』 잘 보존 됨 블랑켄부르크: 『선형마을』 구조 어렵פות이 유추 가능 바르텐베르크: 『양거마을』 일부 남아 있음 팔켄베르크: 『선형마을』 잘 보존됨
기타 경관특유의 문화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웅덩이, 수로, 수목열, 주말정원지구, 하수관개이용 흔적
자연생태공간의 인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팡케천과 불레천 사이의 저지대 늪지 / 습지
종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움: 중급 다양성: 중급 훼손도: 상급 필요한 구현방안 정도: 중급

1.1.2. 발전목표 및 핵심과제 설정

위의 분석결과를 도면에 표현하되 위의 3장에서 살펴 본 방식에 의해 1) 구역을 색상으로 표현 2) 대표 풍경 빛금으로 표현 3) 심볼을 통해 성격 정의





부문 프로그램 "풍경" 중 팔켄부르크 구역 상세. 빨간 테두리 내의 현황은 위의 항공사진 참조.

■ 현황 / 발전목표 / 핵심과제



카로우 ~ 팔켄베르거 들판



그 중 경작문화경관의 전형적인 녹지와 식물상이 존재하는 곳



- 오픈된 초지경관과 유실수로 이루어진 풍경의 보존을 위해 목초지 이용 장려 다만 방목 가축수 제한
- 경작지 규모 제한 (소규모의 짜깁기 경작지들이 다양성을 보장하므로), 농기계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이용
- 들판 구조를 정의하는 발두령 관목, 수목군락 조성
- 휴양이용을 위해 편안한 산책길 조성
- 근교 휴양지 개발할 경우 문화경관의 특성과 특유의 구성요소들을 감안
- 근교 휴양지에 소규모적 전통 농경지 구조 수렴 / 풍경에 변화와 다양성 유도



삼림과 주말정원지구가 풍경을 지배하는 곳



- 이 구역 특유의 전원풍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공간간의 연계성 마련. 고유의 경관 요소 복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유용식물 재배하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춤

- 공원 조성
- 풍경 장애요소 제거

’•••••‘ 가로수길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 식재



전통 마을구조 보존, 필요에 따라 부족한 요소 복원



풍경의 전형적인 구성요소 보존 및 개선이 시급하고 장애 요소 제거해야 할 구역

심볼

설명

심볼

설명



오픈 경관, 유희지



주말정원지구



유실수 초지



삼림, 숲, 수목군락



전통 마을 구조



작은 연못, 용수로 등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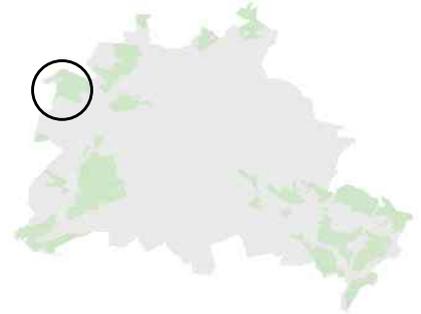
2. 삼림경관이 지배적인 공간 사례

2.1. 사례지: 슈판다우 림 Spandauer Fo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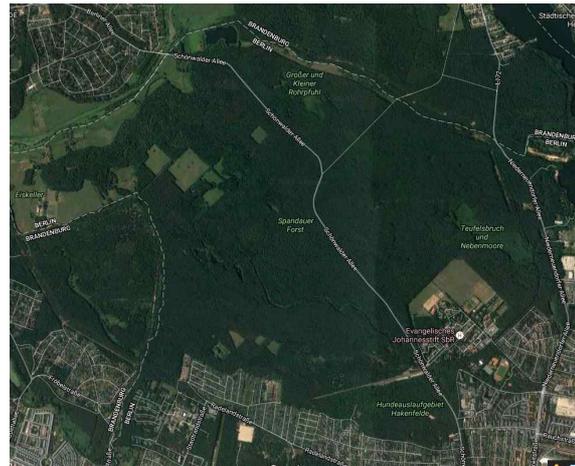
2.1.1. 풍경 분석과 평가

■ 분석

슈판다우어 림은 베를린 북서쪽에 있는 자연림으로 총 1347 헥타르의 베를린에서 가장 큰 삼림 중 하나이다. 북쪽으로는 브란덴부르크 주와의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 하펠강과 맞닿고 남으로 거주지들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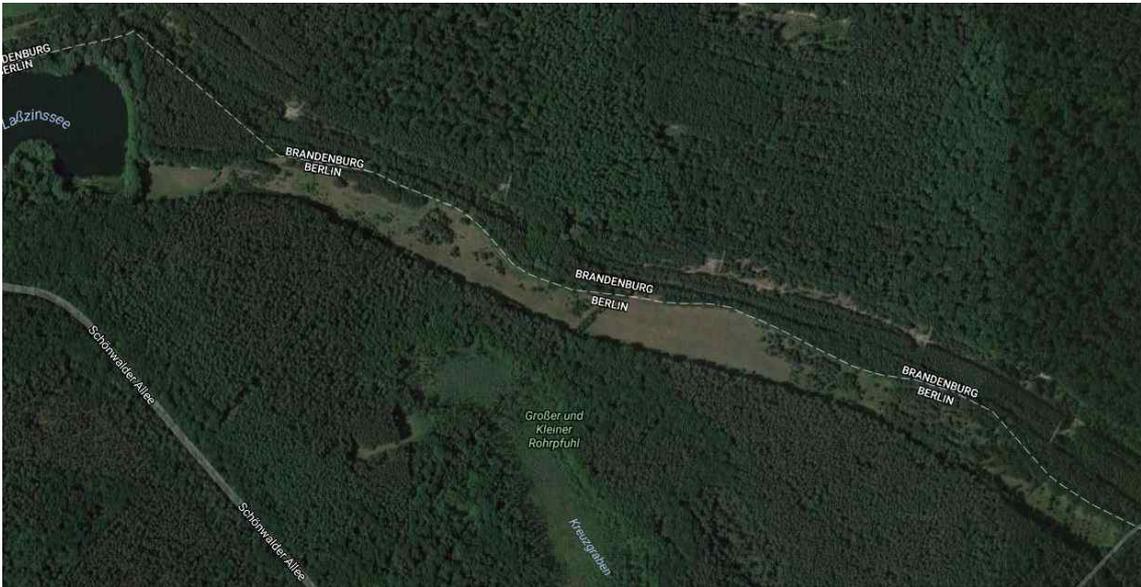


삼림 전체가 NATURA 2000 / 서식지보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러 개소의 자연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자연보호구역은 모두 숲 속에 존재하는 늪지와 습지 들이다.





슈판다우 림에 서식하는 붉은 사슴



구 동독 (브란덴부르크 주)와의 경계 지역에 장벽이 서 있던 관계로 오픈스페이스가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황야식생이 자라고 있다.



장벽이 서 있던 경계지역의 호숫가 초지와 황야 식생. 전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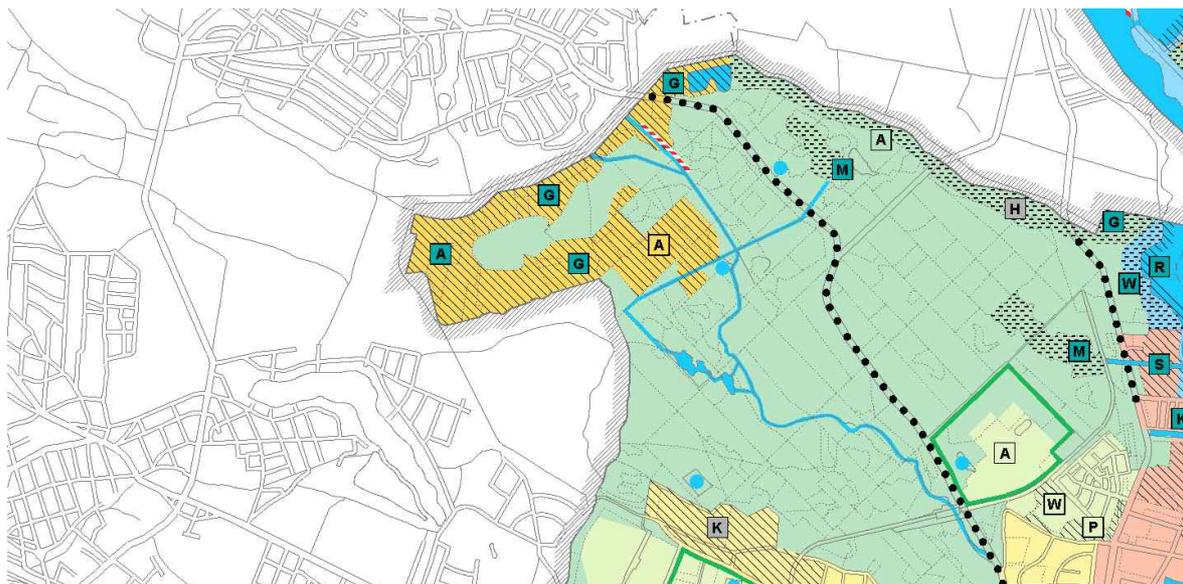
■ 평가

평가기준	결과 요약
규모, 특징적 공간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삼림 ▪ 쉼밭더 대로가 중앙을 통과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이나 풍경을 해치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주수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 참나무류 / 유럽서어나무 / 자작나무 / 물푸레나무

삼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효림 ▪ 자연림 비율이 매우 높고 고목이 매우 많다
숲 속 빈터 및 기타 경관을 다양하게 하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지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운하와 용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자연경관 구조의 인지성 / 자연성이 지배하는 경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에 의지하는 식물상, 늪지연못, 습지, 사구, 웅덩이 용수로 등의 존재로 미루어 우르슈트롬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움 : 상급 ▪ 다양성 : 상급 ▪ 자연침해 상태 : 미약 ▪ 요구되는 발전 방안의 규모 : 적다

2.1.2. 발전목표 및 핵심과제 설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도면으로 표현하였다.



■ 현황 / 발전목표 /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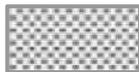
[녹색으로 표시된 삼림풍경에 관련된 사항만 설명]



슈판다우 림 :

모든 삼림경관에 공통적인 발전목표 중 슈판다우 림에 해당하는 사항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삼림구조 보존 / 오래 된 삼림이나 자연에 가까운 삼림 보존
- 천변 숲의 토양이 건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구현
- 숲 속의 하천이나 호수 등 시민들 접근이 용이하도록 방법 강구. 이때 천변 식생 보호에 유의
- 숲 속의 빈터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조망성 개선
- 전통적 먹이숲²¹⁾, 척박초지, 황야, 숲속 초지, 들판, 가로수길, 하천, 습지 등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보존, 발전
- 민감한 삼림구역의 환경영향 저감 (승용차 접근 제한 등)
- 이 구역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풍경정원들 보존
- 핵심과제: 임업림과 구 군사시설 및 숲가의 상업시설 - 다양한 구조의 숲 경관에 수렴시켜 휴양림으로 전환
- 핵심과제: 임업림과 구 군사시설 및 숲가의 상업시설 - 다양한 구조의 숲 경관에 수렴시켜 휴양림으로 전환



그중 특별히 인상적인 풍경 구간

- 반드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발전시켜야 함.

구 경계지역에 형성된 오픈초지 풍경.



- 숲과 대비되어 특별히 눈을 끌고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이므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종퇴석^{終堆石} 사구토양에 서식하는 황야식생



- 위의 경계지역 중 특히 척박한 토양에 부분적으로 황야식생이 자생함. 보존해야 한다.

숲 속의 습한 골짜기에 형성된 늪지, 습지



- 자연보호구역이므로 해당 법에 의거하여 보존하고 발전



슈판다우 대로의 가로수길 -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수목 보완



슈판다우 림을 통과하는 쉐발더 대로 © Stadermann

심볼	설명
	저지대숲
	삼림 내 습한 곳에 존재하는 늪지
	오픈스페이스, 유희지
	종퇴석 토양이나 구릉지에 발생한 황야식생
	천, 계류, 개울, 작은 연못, 웅덩이, 수로

21) 먹이숲 Hutewald, Wood pasture: 전통적으로 숲 속에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풀어 풀이나 도토리, 버섯 등을 찾아서 먹게하던 곳을 말함. 숲으로 뒤덮여 있던 유럽에서 상당히 널리 분포되었던 축산 방식. 현대에 들어 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건강한 축산업의 일환으로 혹은 관광지로서 먹이숲을 부활시킨 곳도 있다.

3. 하천경관이 지배적인 공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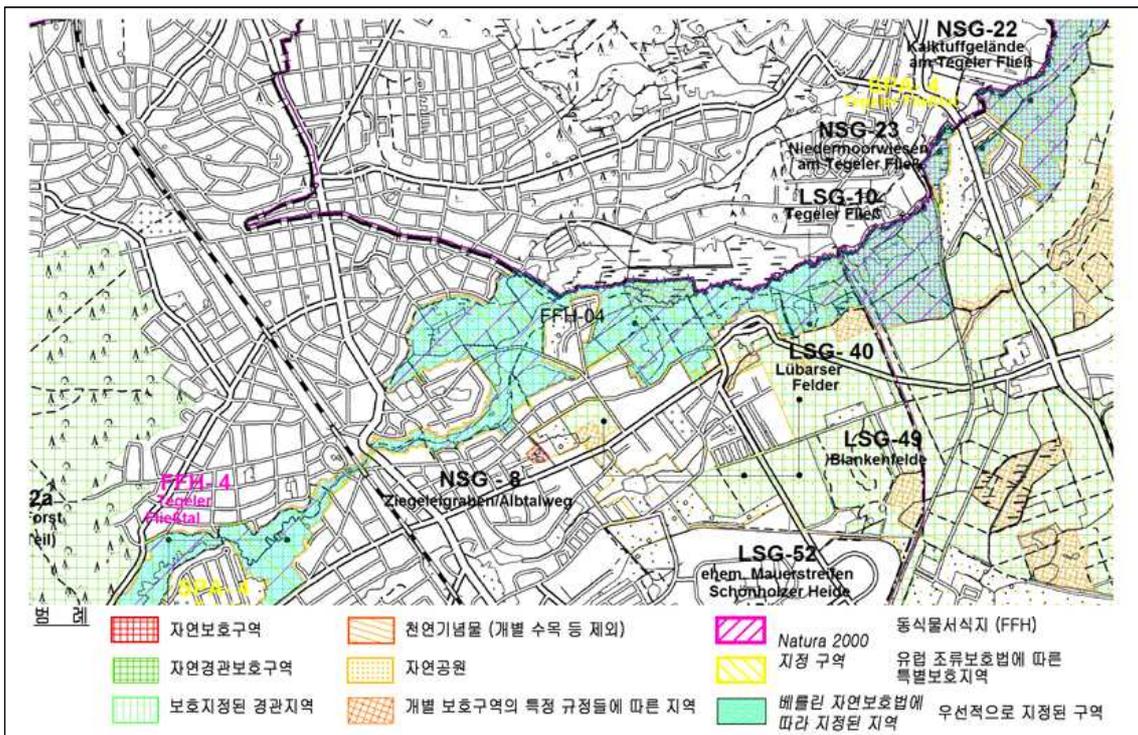
3.1. 사례지: 테겔천변 Tegeler Fließ

3.1.1. 분석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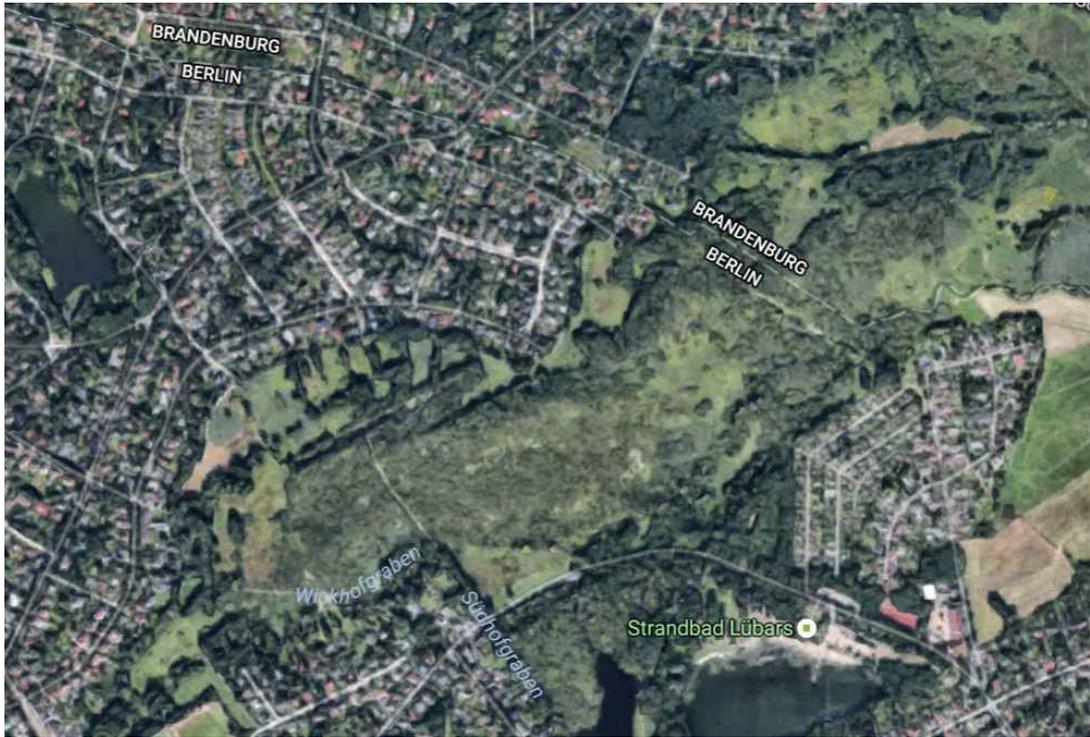
■ 분석

테겔천변은 베를린 북부 브란덴부르크와 면한 지역으로 습초지와 석회늪지대 및 얇은 계곡의 건조초지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소중한 자연생태구역으로 특히 희귀한 난초 습지대가 분포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유럽 연합의 NATURA 2000 구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식물서식지보호구역, 조류보호구역으로 등록되었고 부분적으로 자연보호구역이며 특히 브란덴부르크 주의 자연보호 및 경관보호구역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경계를 넘어 생태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테겔천은 다시 세 개의 지류로 갈라져 흐르며 주변에 작은 늪지, 습지, 용수로, 오리나수 숲 등의 다양한 습지대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상류에서 식수와 관수용 물을 채취하므로 수위가 낮아지거나 절기에 따라 물이 아주 마르는 경우도 있다.



테겔천변의 보호구역 현황. 옥색으로 표시된 곳



테겔천변 항공사진. 테겔천 자체는 숲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 식물이 진한 녹색 구간이 물이 흐르는 곳임을 알아볼 수 있다.

보호구역내 동북부에 석회질 형성이 높은 석회늪지대가 있어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을 이룬 저지대 습지와 늪지가 전체 보호구역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는 활엽수림, 나머지 5%가 테겔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양에 테겔천이 사행하며 흐르고 주변에 목초지 (농가별 구역이 나누어 있음), 저지대 숲 등이 있음. © Bruno D'Amicis



사행하는 테겔천 © Bruno D'Amicis



테겔천변 자연형 하안과 오리나무 군락 © gerald-meyer



검은목두루미 Grus grus 등 다수의 조류서식지 © Membeth



최근에 조성된 산책용 데크를 따라 산책 가능. © Wegwerth



저지대 초지에 들어선 승마장 © Roland_Arhelger



아직 남아 있는 구 헤름스도르프 마을의 교회와 초지. © panoramio



생태공원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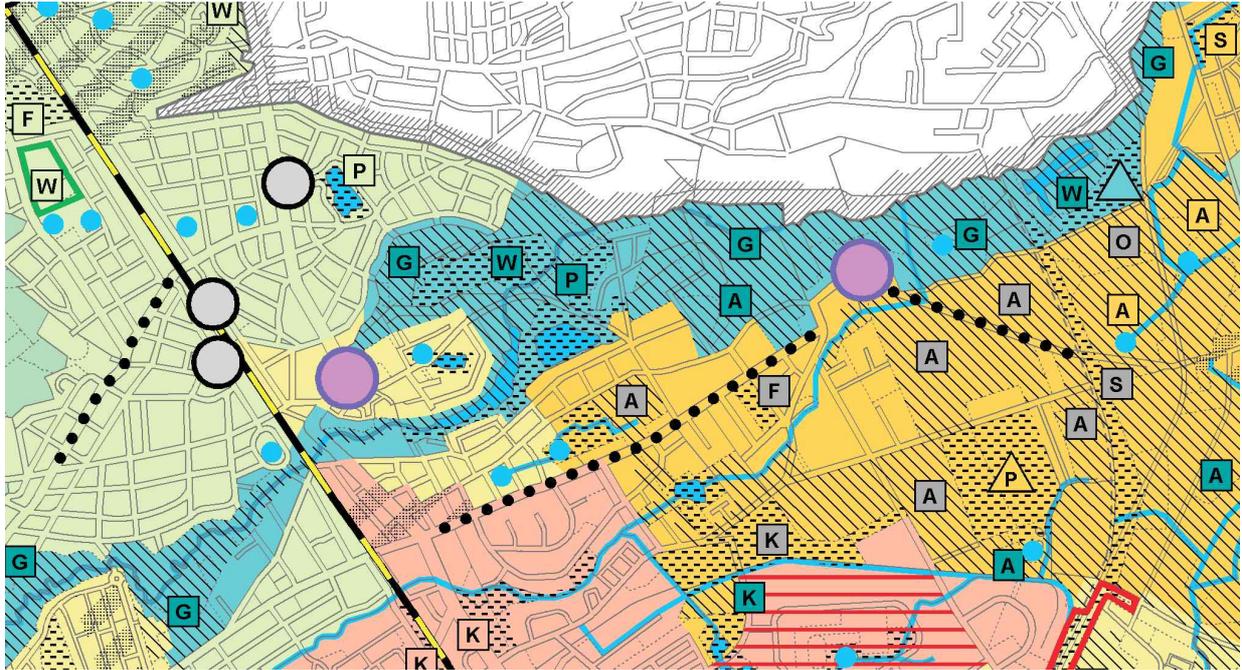
평가기준

결과 요약

천변저지대 풍경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 / 연못 / 습지 - 늪, 수로 - 오리나무 숲
천변 토지이용,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지 - 단독주택단지 - 마을 - 주말정원지구 - 숲
공간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주거지, 도로 및 철길에 의해 세 구역으로 나뉘짐
천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자연형으로 유지 - 사행천
접근성 / 인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로의 접근 전반적으로 매우 용이
풍경을 해치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초지에 말 사육장 - 주말정원지구 - 인접한 주택지 - 도로와 전철
자연생태공간 인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성 계류, 개울, - 사면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원천 인지 가능) - 바르님 구릉지 언덕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움 : 최상급 - 다양성: 상급 - 자연훼손정도: 미미함 - 요구되는 구현방안의 규모: 적음

3.1.2. 발전 목표 및 핵심과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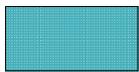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면으로 표현했다.



베를린 환경생태프로그램 풍경부문도 일부. 출처: 베를린 도시환경부

■ 현황 / 발전목표 / 핵심과제

[이하 인접한 다른 구역은 감안하지 않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천변 저지대에 관한 사항만 설명]



테겔천변 저지대 구역



그 중 테겔천변 저지대 특유의 녹지와 식물상이 존재하는 곳 (목초지, 습지식물, 유희지)

- 습지식물 보존
- 이를 위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조치
- 전통적 목초지 이용 유지



저지대의 습지에 서식하는 풀밭은 목초지로 이용

- 목초지 유지
- 가축을 이용한 초지관리 도모



유휴지

- 목초지 이용 장려 (가축을 이용한 초지관리 도모)



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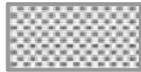
- 유지 관리하되 자연공간적 맥락 복원



아직 존재하는 헤름스도르프 마을 교회와 양거 녹지 보존



테겔천의 세 지류와 곳곳에 산재하는 수로, 웅덩이, 습지 보존, 지속적인 물 공급



풍경을 지배하는 녹지



저지대 숲 (오리나무 군락)



저지대 내 지형을 해치는 흙 쌓기 등 장애요소 제거



주말정원지구

- 현 풍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헤름스도르프 마을 교회와 주변의 녹지 아직 존재함.

- 지속적으로 보존. 대형목과 잔디밭 관리

심볼

설명



풍경을 지배하는 의 전형적인 숲



습지 목초지



유휴지



습지생태공원



저지대 내 지형을 해치는 흙 쌓기 (주택건설을 위해)



계류, 개울, 작은 연못, 웅덩이, 수로



전통 마을중심부 (양거)